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모로코

목차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일반

1.국가개요 4

2.한국과의 관계 5

3.경제현황 8

4.정치 11

5.주요산업 13

II.무역

1.수출입 14

2.한국과의 수출입 23

3.수출 유망항목 27

4.무역협정 29

5.수입규제 및 관세 31

6.통관 · 물류 36

III.투자

1.투자환경 40

2.외국인직접투자 45

3.한국기업 투자 47

4.투자진출방식 51

5.외환 55

6.노무 57

7.세무 61

8.지식재산권 63

9.청산 및 철수 65

IV.참고정보

1.시장특성 67

2.비즈니스 에티켓 70

3.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72

4.현지 진출 성공사례

5.출입국 안내 73
6.유관기관 74
7.물가정보 76
8.출장정보 79
9.생활정보 81
10.KOTRA 무역관 안내 88
11.전시회 정보 93
94

Ⅰ.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모로코 왕국(불어: Royaume du Maroc, 영어: Kingdom of Morocco)
면적	710,850 ㎢ (자료원 : Higher Planning Commission)
수도	라바트(Rabat)
인구	37,176,778 명 (자료원 : Higher Planning Commission / 2023년 12월 10일)
민족(인종)	아랍, 베르베르인(99%), 기타(1%)
언어	아랍어, 베르베르어(공용어), 불어(상용어)
종교	이슬람교(국교)
기후	모로코의 크기는 한반도의 약 3.2배로 대서양, 지중해에 접해 있고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어 지역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존재한다. 통상 북부는 지중해성 기후, 중부는 대륙성 기후, 남부는 사막성 기후가 나타난다. 카사블랑카, 라바트를 포함, 주요 도시가 위치해 있는 북부지역의 경우 건기(5~10월)는 고온건조(평균기온 28도)하고 우기(11~4월)는 온난다습(평균기온 15도)한 편이다.
국가원수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단, 국왕은 3권을 초월) 국왕 : 모하메드 6세 (Mohammed VI, 1999년 7월 30일 즉위) 총리 : 아지즈 아하누쉬 (Aziz Akhannouch, 2021년 9월 10일~)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62-07-06 (자료원 : 외교부 (외교관계 수립 합의일 기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상원조 기본약정	2015-03-18		
국가기록협력 MOU	2022-11-01	우리 국가기록원은 향후 3년간 모로코 국가기록원에 복원 장비 및 연수를 지원할 예정	최재희 국가기록원장과 Jamaa Baida 모로코 국가기록원장 모로코 라바트에서 체결
산림협력 MOU	2018-10-30		2022.6.29 재체결(모로코 산림청 신설로 모로코 측 담당기관 변경)
경제기술협력협정	1976-05-22		
무역협정	1976-05-01		정확한 일자파악 불가로 해당월 1일 입력
문화과학협력협정	1977-01-01		정확한 일자파악 불가로 해당월 1일 입력
체육협력의정서	1990-05-01		정확한 일자파악 불가로 해당월 1일 입력
사증면제협정	1993-08-01		정확한 일자파악 불가로 해당월 1일 입력
청소년체육교류약정	1990-05-01		정확한 일자파악 불가로 해당월 1일 입력
이중과세방지협정	1999-01-27		2000.06.16. 재체결
투자보장협정	1999-01-27		2001.05.08. 재체결
해외봉사단 교환각서	2001-12-01		정확한 일자파악 불가로 해당월 1일 입력
항공협정	2000-06-01		2003.4.10일 재체결
관광협력협정	2006-06-01		정확한 일자파악 불가로 해당월 1일 입력
환경협력 MOU	2011-06-01		정확한 일자파악 불가로 해당월 1일 입력

4대강사업 기술협력 MOU	2012-03-01		정확한 일자파악 불가로 해당월 1일 입력

한국교민 수

350 명 (자료원 : 주 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ㅇ 1962년 7월, 수교 이래 한국-모로코 양국 간에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모로코는 UN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국제기구 선거에서 상호 협력해 온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 모로코는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명목상의 관계만 유지한 채 교류관계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최근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이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1950-1953) 동안 모로코 출신 병사들(당시는 모로코 독립 전)이 프랑스 UN군 소속으로 참전했고, 확인된 희생자만 최소 26명으로 양국간 관계는 1962년 공식수교 보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ㅇ 2018년 12월 20일 - 22일, 이낙연 총리가 정치, 경제계 인사들과 모로코를 방문했다.
- 모로코 엘 오트마니 정부수반 면담, MOU 서명*,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 일정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돈독히 했다.
* 양국이 고등교육,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네트워크, 투자진흥 등 6개의 MOU에 서명했다.

ㅇ 코로나19 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모로코 정부 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 한국정부는 모로코 보건부에 코로나19 진단 워크스루(Walk-Through) 부스 5대, 진단기기, 마스크 10만장 등(30만 달러 어치)을 기부했다.
- 모로코 정부는 한국에 3차례 전용기를 파견하여 코로나 관련 의료용품 등을 수송했고, 동 전용기를 통해 모로코에 머물던 한국인 216명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등 양국간 협력을 다졌다.

ㅇ 6.25 참전 모로코인 공식 확인
- 주모로코 한국대사관은 2021년 주모로코 프랑스 대사관과 모로코 당국의 지원으로 모로코 출신 군인들의 6.25 전쟁 참전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초 그 중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2명 중 1명의 후손을 찾았다. 동 후손은 2023년 11월 8일-13일간 한국 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했다.
- 2023년 10월 31일, 모로코 라바트 국립사진박물관에서 정전 70주년 기념 모로코인 6.25 참전용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경제

ㅇ '21~'22년 한국-모로코 교역 동향
- ('22년) 한국의 대 모로코 수출액은 3억 5,797만 달러(전년 동기대비 +15.6%), 수입액은 2억 6,020만 달러(+17.1%)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 ('21년) 한국의 대 모로코 수출액은 3억 1,000만 달러(전년대비 +14.2%), 수입액은 2억 2,200만 달러(+29.1%)로 8,8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ㅇ '22년 한국-모로코 교역 주요 품목
- (수출) 1위 폴리에스터직물 (전체 수출의 12%), 2위 승용차(10%), 아연도강판(10%), 선박(6%), 합성수지(4%)가 3~5위를 보였다. 선박은 유조선(1척)이다.
- (수입) 원유가 전통적인 1위 수입품목 동괴및스크랩을 제치고 대 모로코 수입 1위 품목으로 올라섰으며 직물제의류, 어육, 동괴및스크랩, 집적회로반도체가 2~5위를 차지했다.

ㅇ 한국-모로코 투자 동향
- ('22년) 투자신고 2건(제조업), 신고금액 3,811만 달러(제조업), 실투자 207만 달러로 아직 팬데믹 이전보다 투자실적이 미미하다.
- ('21년) 코로나 여파로 투자신고 3건(제조업), 신고금액 295만 달러(제조업)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 ('20년) 투자신고 3건(제조업 2건, 건설업 1건), 신고금액 1,430만 달러(제조업)를 기록하였다.
- ('19년 이전) 글로벌 완성차의 모로코 내 진출 및 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자동차 부품기업들도 모로코 진출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중심으로 '17~'18년 한국의 모로코 투자신고액은 각각 3,000, 3,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문화

ㅇ 한국-모로코 간 문화과학협력협정(1977년)을 맺은 이후, 양국 정부 간 문화교류를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ㅇ 문화공동위 정기 개최
- 1993년 서울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2016년 라바트에서 6차 회의를 여는 등 양국 우호증진을 위해 활동 중이다.

ㅇ 최근 양국 간 주요 문화 행사
- 2017년 7월: K-Pop World festival 제5회 모로코 예선전 개최 (모로코 모하메디아 극장)
- 2017년 9월: 한국-모로코 수교 55주년 계기 한국주간 공연 (대사관저, 모하메드 5세 국립극장)
- 2018년 3월: 케니트라 국립상경대학 '한국의 날' 행사 (케니트라 국립상경대학)
- 2022년 7월: 한-모로코 수교 60주년 기념 태권도 시범단 K-Tiger 공연 (모하메드 6세 국립극장)

ㅇ 모로코 내 한류 현황
- 2001년: 라바트 모하메드 5세 대학에서 첫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이후 현재 9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 진행
- 2008년: 한국드라마 '슬픈 연가'가 현지방송에서 최초 방영된 이후 2016년까지 총 21편의 드라마가 방영
- 2009년: 마라케시 국제영화제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총 42편의 영화를 선보이며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받음
- 10~20대 중심으로 자발적인 K-Pop 동호회가 형성된 이후 일부 주요대학에서도 자발적인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개최
- 2018년 10월: 이승기, 수지 등이 출연한 드라마 '배가본드'를 모로코에서 촬영
- 2020년 3월: 하정우, 주지훈 주연의 영화 '피랍'을 모로코에서 촬영
- 2021년: 김윤석, 조인성 주연의 영화 '모가디슈'를 촬영
- 2022년 11월: 마라케시 국제영화제에서 캐나다 이민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 Riceboy Sleeps의 배우 최승윤이 여우주연상 수상
- 2023년 4월: 카사블랑카 안파공원(Parc d'Anfa)에서 대사관 주최 문화행사 개최. 이틀간 약 1,200여명 방문

ㅇ 최근 한류 동향
- 최근 방영된 “오징어 게임(Squid Game)”, “마이네임(My name)”, “지옥(Hell bound)”, “빈센조(Vincenzo)”, “알고 있지만(Nevertheless)”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들이 모로코에서 모두 상위 10위권에 들며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다. 현지 한류 팬들은 넷플릭스 전에 이미 유튜브를 통해 K-Pop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한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 콘텐츠들을 통해 직업윤리, 존중, 충성심, 가정 중시 등 한국 사회의 여러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양국 문화간 공통점을 느껴 한류는 흥미진진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하다고 평한다.
- 한류 흥행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늘었으며, 일부 모로코의 한류 팬들은 라바트 모하메드 5세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기도 하며 한국어 말하기대회(TOPIK) 시험 응시자는 증가 추세이다.
- 특히, FIFA 주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가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로는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출하여 한국에도 모로코가 널리 알려졌으며, KBS 1TV '걸어서 세계 속으로' 모로코편이 2023년 4월1일 방영되는 등 여행 다큐멘터리 취재 등을 위해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ㅇ 한국 정부, 모로코 지진 복구 인도적 지원 2백만불 규모
- 2023년 9월 8일(금) 모로코 중남부 발생 지진 피해 복구 위해 한국 정부는 2백만불 규모의 현물을 인도적 지원키로 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	2.9	-7.2	7.9	1.1	2.2
명목GDP (십억$)	128.9	121.4	141.8	130.9	140.2
1인당 GDP (PPP, $)	8,690	8,090	8,960	9,610	10,130
1인당 명목 GDP ($)	3,550	3,310	3,820	3,490	3,700
정부부채 (% of GDP)	74.8	87.6	83.3	86.1	82.3
물가상승률 (%)	0.2	0.6	1.4	6.7	6.4
실업률 (%)	9.2	11.9	12.3	11.8	13.5
수출액 (백만$)	43,939	37,358	47,052	58,661	57,470
수입액 (백만$)	54,012	46,158	60,189	73,720	67,926
무역수지 (백만$)	-10,073	-8,800	-13,137	-15,059	-10,456
외환 보유고 (백만$)	26,413	35,999	35,648	32,317	34,246
이자율 (%)	2.25	1.5	1.5	2.5	2.9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9.62	9.5	8.99	10.16	10.32

<자료원 : IMF, EIU, 모로코 경제기획원>

나. 경제 동향

(경제전반) 모로코는 과거 농업/광업/수산업 등 1차 산업 중심에서 자동차, 항공 등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 기술 및 자본 등이 부족하나 유럽과의 인접성, 전 세계 55개국과 FTA 체결, 저렴한 인건비 등 장점을 토대로 글로벌 제조업체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르노, PSA, 보잉 및 부품 협력사들이 현지에 진출하였다.

(경제성장률) 모로코 GDP 성장률은 2023년 2분기 대비 3분기 6.6%로 증가했다. 이는 요식업, 제조, 건설업, 어업부문에서 두자릿수로

증가한 것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업, 전기가스,수도,공공서비스,교육부문은 한 자릿수로 낮지만 전분기 대비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체 GDP의 14.2%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이 10.9% 성장한 것이 주효했다. 다음으로 요식업(GDP의 4.3%) 성장세가 26.6% 보여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출입) 2023년 1~10월간 모로코의 수출은 3,501억 디람(약 34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2022) 동기대비 2.4% 감소세를 보였다. 인산염(부산물 포함) 수출이 576억 디람(55.8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43.4% 감소했으며, 자동차 수출이 1,163억 디람(112.7억 달러)으로 30.5% 늘어나 수출 하락폭을 상쇄했다.

(물가) 모로코는 식량(밀) 및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에 식료품이 40%, 연료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23.12.19일 알마그리브 은행(BAM, 모로코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모로코 인플레이션은 2022년 6.6%에서 2023년 평균 6.4%로 감소하고, 2024년과 2025년에는 2.4%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2023년 2월 10.1%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져 10월 4.3%에 이르렀다.

외부 인플레이션 압력의 소멸 예상, 2024년 예산법의 재정 조치의 직접적인 효과, 거의 안정적인 가격안정과 함께 2024~2026년 3개년 예산 프로그램을 고려한 결과이다. 가격변동성이 큰 식품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과 2025년 두 해 모두 약 2.4%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 코로나 지속에 따라 관광업(호텔, 식당 등),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 2021년 12.8%까지 치솟으며 최근 18년간 최고치를 보였던 실업률은 2023년 2분기말 12.4%를 보여 전년 동기 11.2% 대비 1.2% 늘었다. 2023년 2분기 말 실업률은 도시지역 16.3%, 농촌지역 5.7%를 나타냈다. 특히 도시지역과 고학력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실질적인 청년(15-24세) 실업률은 46.1%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0.3% 줄긴 했으나 청년실업은 여전히 모로코 경제의 골치아픈 과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 경제 전망

2023년에 차츰 회복세를 향해가던 모로코 경제에 9월 7일 발생한 모로코 남부강진(진도 6.8)은 피해복구 대책 마련으로 당분간 경제회복이 더딜 것이다.
당초 2023년 경제전망 관련, 모로코 경제기획원(HCP)은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고유가, 가뭄에 따른 물가상승과 농업부진의 여파가 2년 넘게 이어졌으나 모로코 정부는 국영기업인 인산광물공사(OCP)를 통해 인산 채취를 독려하고, 인산 단가가 상승하면서 경제에 그나마 숨통을 트였다.

2024년에도 지진 재건과 사회적 지원이 우선순위로 유지됨에 따라 재정 적자는 2023년 GDP의 5.4%에서 6.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재정 건전화 노력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적자 폭은 GDP의 3.5%대로 좁혀질 것이다. 재정지출은 건강 보장 및 사회적 혜택은 물론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겨울철 가뭄으로 인해 모로코 경제의 기초인 농업분야의 부진은 여전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석유, 밀을 수입에 의존하는 모로코의 경우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이 우려된다. 모로코는 우크라이나산 밀 수입 감소에 따라 러시아산 밀 수입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 러시아와의 교역을 강화하고 있다.

모로코는 자동차, 의류 등 제조업 분야의 유럽 수입수요를 비롯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관광 수입 등 대외변수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GDP의 20%를 차지하는 농업이 강수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농업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 여부는 날씨, 변이 바이러스 등 방역여건, 러시아사태 추이, 글로벌 경제회복 부 등 대외여건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년대비 회복세 보였다. 비농업부문은 2%, 농업부문은 6.3%로 큰 폭으로 활황 보였다.
’23.9.8 발생 모로코 강진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당초 전망 보다 조정되어 ’23 모로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로코 중앙은행 2.6%, EIU 2.9%, IMF, EBRD 3.1%로 각각 전망했다.

’22년 러-우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 60년만의 가뭄에 따른 타격으로 농업부문 15.1% 축소, 6.6%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위축됐으나, 강수량 회복으로 인한 농업호조, 관광객 증가로 경제 빠르게 본궤도진입했다.
모로코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완화 위해 ‘22.9.27.부터 3번에 걸쳐 기준금리 1.5%에서 3%로 인상되었으며, 인플레이션 비율 팬데믹 이전인 2%로 줄어들기 전에는 동 이자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4. 정치

가. 정치체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이나 국왕은 3권을 초월한다.
- 국가원수 겸 최고 종교지도자로 국가기관들 간 관계의 최고 조정자이다.
- '11년 개헌*으로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다소 축소되고 의회 권한 강화됐다.
  * 하원 최대의석 정당이 정부수반(총리)를 임명, 장관은 정부수반의 제청에 따라 임명한다.

(의회) 상원 120석, 하원 395석으로 구성된 양원제다.
- '21.9월 총선 결과 중도우파인 RNI가 102석(25.8%)을 차지하여 제1당 부상했다.
- 독립국립연합당(RNI : Rassemblement National des Indépendants)당수인 아지즈 아칸누쉬(Aziz Akhannouch)가 '21.9월 새로운 정부수반(총리)로 임명됐다.

나. 최신동향

아칸누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팬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4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 등 매우 어려운 대외 환경에 직면했다.
특히 식료품의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물가앙등에 대한 항의시위가 이어졌다.
'22년 가을 아칸누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세금감면 등 서민친화정책을 펼쳤다.
'23년 들어 안정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던 아칸누쉬 정부는 9월 7일 발생한 남부지역 강진을 맞아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발빠르게 대처하여 국민통합을 이끌어냈다고 평을 받고 있다.
지진 피해 복구 및 차기경제계획에 사회적 안정과 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숙원이던 2030 FIFA 월드컵 유치도 성공하여 현재는 눈에 띄는 반정부 시위 등은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이며, 종교적으로도 이슬람교를 신봉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특징을 지닌다.
모로코의 최대 교역시장인 EU와의 관계가 다소 긴장상태다.
'23년 1월 EU 의회가 모로코의 언론자유도를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모로코는 스페인과는 교역확대 등 관계개선을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2030 FIFA 월드컵을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3개국이 공동개최하기로 결정되면서 모로코와 이들 이베리안 반도국들과의 관계는 양호하다.

모로코는 미국이 독립선언한 초창기에 이를 승인한 국가로서 미국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다. 한편, 러시아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잡은 모로코이기에 미국 등 서방진영은 아프리카 나라들과 함께 모로코에서 연례 다국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실시된 제19회 African Lion 2023에 18개국 군인들이 참가했다. 아울러, 금번 훈련에는 이스라엘 육군 보병 부대가 처음으로 African Lion 훈련에 참가했다.

하지만, '23년 10월 초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로코 내 이슬람세력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이 형성되어 모로코-이스라엘간 직항로가 폐쇄되고
양국간 공식교류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편, 서사하라 지대 관련 알제리와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21년 8월 알제리가 모로코와 단교 선언하여 마그레브-유럽 연결 가스파이프라인 차단 및 영공진입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모로코는 사우디/미국 등 대체 가스공급원 마련하느라 재정위기를 겪기도 했다.
'24년 모로코 국방비는 110억 불(1,197억 디람)로 책정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군용 드론, 연안경비정 등 방산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식언어 아랍어, 아마지그어(모로코 토착어) 외에도 프랑스어가 광범위하게 쓰인다. 프랑스 식민통치를 겪어 각종 계약서, 공문서, 방송언어, 공기관 홈페이지 언어 등에서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영어가 프랑스어 보다 선호되고 있으며, 정부도 세계화 추세에 맞춰 중등교육부터 영어교육을 전면화할 예정이다.

라. 정책 · 법령

모로코는 기업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비즈니스 환경을 향상하고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청년 실업해소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한다.
대표적으로 2014/2020 산업가속화계획(Plan d'acceleration industrielle)을 통해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다.

법적 인프라 개선으로는 2022년 10월 의회를 통과한 "모로코 新 투자헌장"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투자 비중을 확대(현재 1/3→2035년 2/3)하여 경제활성화 하려 한다.
투자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대비 최대 환급금 기준액을 기존 투자액의 22%에서 30%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용규모, 미래유망산업투자, 여성고용, 낙후지역투자 등 국가균형성장 요소를 충족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적자원 관련 정책으로는 2023/2024학기를 기점으로 중등교육부터 영어교육을 전면화함.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2030년 무렵엔 그 동안 불어 위주의 사회의 언어 중심축이 영어 중심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저학력자 지원 중심의 고용강화 대책인 Awrach 2기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혜자들은 직업연수와 함께 최저임금 수준 소득, 가족수당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모로코는 2022년에 40년만에 맞는 극심한 가뭄을 겪음에 따라 2050 수자원국가계획(Plan National de l'Eau)을 수립했는데, 이를 통해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폐수 처리장, 댐 건설, 지하수 현황 파악 등을 추진한다.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버스, 운전자, 인프라 등 3가지 중심으로 육상교통 강화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버스차량 교체를 완료하기 위해 약 5억 디람을 투자하고, 운전자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도로연수와 면허취득시험을 강화하며, 최신 정류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모로코는 자동차, 제약산업 등이 일부 제조업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체로 제조업 기반은 미약하며, 서비스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금융분야는 모로코가 아프리카 주요 금융 중심지로서 은행, 보험업 등이 발달했고, 3,500km넘는 긴 해안선과 다양한 자연환경 통한 관광산업 또한 모로코 정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다.
2026년까지 세계관광지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디지털 컨텐츠를 통한 홍보강화, 온오프라인 여행상품 확대, 항공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모로코는 농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광물(인산염)산업, 관광산업, 금융서비스업 등이 주요 산업이다.

인구의 47%(2004)까지 차지했던 농업은 30%(2022)로 줄긴 했으나 여전히 고용규모가 가장 큰 산업 분야로서 모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모로코 농업은 GDP의 13-40%를 지난 20여년간 차지해왔다. 2021년에는 농업비중이 GDP의 17.9%까지 차지했으나 2022년 3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젼년대비 작황이 2/3에 머물렀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모로코 경제에서 가장 GDP공헌 및 수출비중이 높은 분야로서 연간 약 40-45만대를 생산하여 모로코는 아프리카 최대 자동차 생산국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가까운 지리적 잇점과 저렴한 인건비, 언어적 유사성(불어 등)을 살려 모로코 북부 탕헤르를 중심으로 르노, PSA 등 자동차 완성차 기업의 공장들이 진출해 있다. 르노는 모로코에 2012년 최초 공장을 준공했으며, PSA는 2019.6월에 진출했다. 2019년에는 모로코 수출의 27%를 자동차 분야가 차지했다. 향후 모로코 자동차산업 전망은 유럽 경기 회복 저하에 따른 부정적인 면과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성장 전망을 밝게보는 면이 공존한다.

항공산업은 팬데믹 동안 주문량 28% 급감(2020)으로 타격 입었으나, 2021년 수출이 22% 회복하며, 2022년 상반기엔 전년 동기 대비 62%까지 늘었다.

모로코 국영 인산염공사(OCP)는 단일기업으로는 모로코 내 최대 매출/수출실적을 보이는 중요 기업이다. 세계 최대 인산염 비료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OCP는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을 예상하고 비료생산을 늘이고 있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자동차) 현지진출 완성차(르노/PSA) 중심으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 강국이다.
- 글로벌 완성차 현지 생산 공장 운영으로 인해 자동차 및 부품은 모로코의 수출 1-2위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 '25년까지 연간 100만대 생산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노력 중이다.
-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 모로코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대비 약 16% 증가한 345,244대에 달했으며 전 세계 73개국에 약 93억불 규모 수출했다.
  * 르노 25.2만대(탕헤르 공장 20.4만대, 카사블랑카 공장 4.7만대), PSA사가 9.2만대 수출
- 르노 탕헤르 공장은 '12년 완공 및 가동 시작, '22년 누계 기준 총 265만대 생산 및 70여개국에 수출했다.
- '22.6.01. 르노는 모로코 광산기업 Managem에서 연5천톤 황화코발트 구매예정이라고 공개했다.
- '22.9.14. 르노는 탕헤르 공장에서 '23년부터 연간 17,000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23.05.15. 모로코 최초의 자국산 자동차 브랜드명 NEO가 왕궁에서 국왕에게 시연을 보였다.
- '23.09.24 한국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업 LG화학이 모로코에 배터리 공장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23.12.01. 모로코 최초의 자국산 자동차 브랜드명 NEO가 유료판매 기념식을 가졌다.

(농·수산업) GDP 13-15%, 노동인구 30%를 차지하는 기초산업이다.(2022년 하반기 기준)
- (농업) 모로코는 통상 과일·채소* 등을 유럽에 수출하고 주식인 밀을 수입한다.
  최근엔 러시아산 연밀(Soft wheat)의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다.
  * 오렌지/토마토/올리브오일 등 농산물 수출의 약 60%를 유럽 시장에 판매한다.

(가뭄 여파)
모로코 농업은 천수답에 의존하는 방식이어 강우량에 따라 작황의 호불황 차이가 심하다.
2022년엔 전년 대비 3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강수량이 44%가 줄어 농산물 산출이 전년대비 67%에 머물렀다.
모로코 정부에서도 가뭄해소 위해 2020-50년까지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해 수자원 대책을 세웠고, 2021년엔 7억 달러 예산으로 댐 23곳을 설치했다.

- (수산업) 대서양 및 지중해에 접해 있어 어류자원이 풍부, 어획량 대부분을 유럽, 아시아 등 해외로 수출 중이다.

(광업) 비료 원료인 인광석 전 세계 매장량 1위(모로코 75%, 기타 25%)이다.
- 과거에는 인광석 자체를 주로 수출(세계시장점유율 50%)하였으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인광석을 원료로 하는 세계 최대규모(연 생산량 1백만톤) 비료공장을 설립하여 세계 비료시장의 물량의 22%가량을 공급 중이다.

Ⅱ.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모로코 대외교역량은 2017~2018년 약 600억~70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19~2020년 줄어든 다음, 2021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200억 불 내외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로 2020년 약 150억 불대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경제활성화 및 에너지 수입 확대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2년도 무역적자도 304억 불 적자를 보였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수준이 발달한 유럽과의 교역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주요 수출품목은 인광석, 자동차(부품), 의류가죽, 농산물,가공품 등이며 수입품목은 금액기준으로 에너지 , 전자기기, 보일러류, 자동차/부품, 식료품 수입 순이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EU는 모로코의 최대 교역 파트너(2022년 기준 전체 교역의 58.8% 비중)로 모로코 수출의 56.6%, 수입의 49.5%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페인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 비중의 19.6%, 수입의 14.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프랑스가 수출 비중 18.8%, 수입 비중 10.6%를 각각 기록했다.
모로코-EU FTA 협정 및 유럽에 대한 모로코의 선호로 인해 EU 교역 편중 현상이 이어졌는데, 2030 FIFA 공동개최(모로코-스페인-포르투갈)로 인해 이들과의 경제교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2006.1월 발효됨에 따라 교역이 증가하여 미국은 수입 원천국 3위를 차지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4위)다.
모로코는 비산유국으로서 일반 국민의 가격민감도가 높은 편이어서 중국산 공산품의 저가 공세에 시장이 빠르게 잠식했다. 특히, 대 중국 무역적자 폭은 스페인, 미국, 튀르키예 등 3개국 적자 금액을 합산한 것과 비등하다.

〈모로코의 상위 10대 수출대상국〉
스페인 82억불 19.6% 프랑스 80억불 19.1% 인도 27억불 6.3% 이탈리아 18억불 4.4% 브라질 17억불 4.0% 영국 16억불 3.8% 미국 14억불 3.3%, 독일 13억불 3.1%, 튀르키예 10억불 2.6%, 네델란드 9억불 2.1%, 한국 2.6억불 0.6%, 수출총계 421억불 100.0%

〈모로코의 상위 10대 수입원천국 (비중)〉
스페인 102억불 14.1%, 프랑스 76.8억불 10.5%, 미국 72.8억불 10.0%, 중국 53.9억불 7.4%, 이탈리아 46.8억불 6.4%, 인도 37.8억불 5.1%, 튀르키예 32.8억불 4.5%,
독일 29.6억불 4.1%, 브라질 22.5억불 3.1%, 사우디아라비아 14.2억불 2.2%, 한국 3.6억불 0.5% 수입총계 725억불100.0%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7,380,639,935
2	프랑스	6,503,940,297
3	이탈리아	1,707,813,086

4	미국	1,265,094,920
5	인도	1,124,896,467
6	독일	1,038,210,505
7	브라질	937,153,641
8	네덜란드	845,439,171
9	터키	831,456,259
10	영국	827,630,383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7,245,891,423
2	프랑스	5,185,419,296
3	독일	1,469,325,117
4	인도	1,285,583,199
5	브라질	1,194,912,047
6	이탈리아	1,191,184,700
7	미국	1,050,973,207
8	영국	740,218,617
9	네덜란드	701,278,063
10	폴란드	608,636,172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8,605,901,701
2	프랑스	6,659,993,956
3	브라질	2,010,864,226
4	인도	1,962,975,613
5	독일	1,742,798,405
6	이탈리아	1,524,915,258
7	영국	1,322,129,664

8	미국	1,279,282,062
9	튀르키예	843,961,493
10	중국	823,021,112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EU	21,404,057,377
2	스페인	8,292,667,805
3	브라질	2,132,626,696
4	독일	1,951,161,269
5	영국	1,732,215,587
6	미국	1,635,272,783
7	튀르키예	976,289,622
8	폴란드	880,702,217
9	네덜란드	597,800,705
10	캐나다	489,048,893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8,090,614,685
2	프랑스	6,290,946,994
3	중화인민공화국	5,195,130,579
4	미국	4,088,680,455
5	터키	2,752,023,458
6	이탈리아	2,749,911,793
7	독일	2,597,123,418
8	러시아	1,637,178,859
9	포르투갈	1,439,058,606
10	사우디아라비아	1,240,115,50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8,269,514,260
2	프랑스	4,605,998,386
3	중화인민공화국	4,162,682,611
4	독일	2,166,539,417
5	터키	2,002,614,770
6	이탈리아	1,927,915,782
7	미국	1,746,939,678
8	네덜란드	1,031,504,288
9	벨기에	708,356,322
10	브라질	661,768,94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스페인	10,988,544,925
2	중국	5,675,298,433
3	프랑스	5,279,866,006
4	튀르키예	2,899,783,622
5	이탈리아	2,585,914,262
6	독일	2,554,943,925
7	미국	2,203,557,775
8	네덜란드	1,424,066,468
9	벨기에	891,262,685
10	포르투갈	870,336,346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EU	31,861,264,293

2	스페인	11,892,505,197
3	튀르키예	2,915,675,799
4	미국	2,854,619,575
5	독일	2,838,610,066
6	네덜란드	1,391,107,262
7	브라질	1,046,775,191
8	영국	1,042,958,177
9	폴란드	602,490,896
10	포르투갈	586,363,607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모로코의 주요 수출품은 2021년까지는 자동차(부품)이 1위였으나, 2022년 처음으로 인광석/비료가 1위를 차지했다.

<모로코 주요 수출품목(비중)>
인광석/비료116억불 (27.6%), 자동차(부품포함) 63.4억불(15.0%), 전자전기 59.7억불(14.1%),농산물 및농수산가공품 51.2억불(12.2%),의류 및 가죽 27.1억불(6.4%), 항공부품 13.3억불(3.1%),

주요 수입품목 중 에너지 부문((HS Code : 27)수입이 150억불(20%)로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자기기류(HS Code : 84)가 60억불(8.2%)로 2위를 차지했다.

<모로코 주요 수입품목(비중)>
에너지150억불(20.0%), 전자기기류 60억불(8.2%), 보일러류 56.4억불(7.7%), 자동차/부품 54.5억불(7.5%), 식료품 36.7억불(5.0%), 플라스틱류 29.9억불(4.1%)

모로코 경제기획원(HCP)이 발표한 '23년 1-10월 모로코의 수입통계 중 100억 디르함(약10억불)이상인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디르함)

천연가스(471억), 자동차부품(260억), 원유(201억), 승용차(184억), 밀(163억), 플라스틱(166억), 코크스(143), 피스톤엔진,부품(127억), 항공부품(120억), 전기장치(120억), 전선케이블(114억), 화학제품(109억), 직물(101억), 기타 완제품(124억)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2,159,543,563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2,053,874,110
3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1,442,925,529
4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1,104,736,529
5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946,367,133
6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811,218,489
7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04,942,055
8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781,182,040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761,001,943
10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760,175,81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2,816,307,362
2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1,219,055,580
3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1,192,297,357
4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1,170,590,717
5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1,079,478,729
6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914,444,977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658,317,768
8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646,153,113
9	030752	냉동한 것	423,268,396
10	251020	잘게 부순 것	420,127,220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2,992,643,893
2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2,106,091,745
3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1,947,598,131
4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1,814,474,573
5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1,400,915,984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161,101,645
7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11,325,328
8	251020	잘게 부순 것	684,637,345
9	030752	냉동한 것	679,785,330
10	08102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loganberry)	436,579,965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5,322,247,832
2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2,990,333,160
3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1,947,428,669
4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492,982,594
5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208,037,162
6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1,195,005,815
7	030752	냉동한 것	869,620,519
8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787,572,981
9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698,119,501
10	08102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loganberry)	689,885,726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4,893,411,296
2	271113	부탄	1,121,905,020
3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068,048,336
4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826,693,311
5	270119	그 밖의 석탄	802,560,555
6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799,998,463
7	870710	제8703호의 차량용	767,273,090
8	2503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725,172,197
9	100199	기타	705,475,522
10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576,524,21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972,001,817
2	100199	기타	823,007,697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58,110,025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601,360,833
5	271113	부탄	556,805,951
6	100590	기타	498,243,669
7	870899	기타	424,229,567
8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21,858,489
9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401,295,713
10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373,162,013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696,112,319
2	100199	기타	951,284,389
3	271113	부탄	918,194,019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877,498,966
5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666,725,063
6	870899	기타	649,609,695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88,664,390
8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72,592,527
9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43,995,822
10	100590	기타	484,351,640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5,145,361,375
2	100199	기타	1,940,238,109
3	271113	부탄	1,587,959,175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225,402,718
5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것	1,192,165,837
6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58,961,550
7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028,435,074
8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909,224,614
9	270799	기타	868,909,045
10	870899	기타	779,014,692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COVID 19 팬데믹 본격화 전인 '19년 양국 교역규모는 4.8억 불이었으며, '20년 4.4억 불로 저조했지만 '21년부터는 회복하여 5.3억불, '22년 6.2억불로
’22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팬데믹 전 대비 약 29% 증가했다. ’23년 1~10월 양국간 교역규모는 4.8억불로 '19년 수준을 달성했다.

- (수출) '23.1-10월(3.2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0%가 늘었으며 '21(3.1억불), ’22(3.6억 불)에 이어 3년째 3억불 이상 수출 중이다.
- (수입) ’23.1-10월(1.55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5.2% 감소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1년, '22년 유지했던 2억불 이상 수입실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한편, 한국의 대 모로코 전세계 대비 수출순위 및 비중(24위, 0.88%), 수입순위 및 비중(69위.0.14%)는 0.1%권으로 미미하며 수출 비중이 1%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3년 한-모로코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수출 주요품목은 폴리에스터직물/기타자동차/아연도강판 등 호조를 보였으나, 승용차는 부진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의류/광물자원(동괴/알루미늄 등)/수산물 순이었다.

'23년 1-10월 교역현황을 보면 대 모로코 수출액은 3.24억 불(10.4% 증가), 수입액은 1.55억불(25.2% 감소)를 보였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전반)‘22년 한-모로코 교역은 6.2억 불을 기록했다.
(추세) 코로나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 최근 모로코와의 수출입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
- (수출)‘22년 對모로코 수출은 3.6억 불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했다.
- (수입)‘22년 對모로코 수입은 2.6억 불로 전년동기대비 17.1% 늘었다.

'22년 한-모로코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수출 주요품목) 폴리에스터직물/기타자동차/아연도강판 등 호조를 보였으나, 승용차는 부진했다.
선박(유조선)은 '22년 수출품목 4위에 달한 특이치를 보였다.
(수입 주요품목) 의류/광물자원(동괴/알루미늄 등)/수산물을 주로 수입했다.

'23년 1-10월 교역현황을 보면 대 모로코 수출액은 3.24억 불(16.3% 증가), 수입액은 1.55억불(25.2% 감소)를 보였다.

(수출 주요품목) 폴리에스터직물/기타자동차/승용차/아연도강판/합성수지 등이 수출 상위품목을 차지했다. 기타자동차 실적이 190%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수입 주요품목) 직물제의류/집적회로반도체/기타 금속광물/편직제의/어육/알루미늄괴스크랩/동괴스크랩 순이었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9	322	160	162
2020	271	172	99
2021	310	222	88
2022	358	260	98
2023	324	155	169

<자료원 : 한국관세청>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아연도강판, 합성수지 중심으로 '22년 수출 증가했다.
- 선박은 오일탱커(9,000DWT) 납품으로 4위로 급등했다.
- '21년 수출 3위 품목인 건설중장비는 현지 건설수요 부족으로 수출이 줄었다.

- 원유, 직물제의류, 어육, 광물(동괴및스크랩 등) 등을 주로 수입됐다.
- '22년 기준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 원유, 집적회로반도체 등이 증가했다.

- '23년 1-10월 수출은 폴리에스터 직물 4,030만 달러 수출(13.3% 증가)로 수출품목 1위 유지했고,
  기타자동차 3,759만불(190.5%) 로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유가상승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큰 인기 끌었기 때문이다.
  승용차도 3,577만불(11.2%)로 주요 수출품목 3위를 차지했다.
  아연도강판 3150만불(12.3%), 합성수지 2053만불(75.8%), 건설중장비 1565만불(19.8%)로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923만불(-14.4%)로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기타 석유화학제품 638만불(-17.0%)과 함께 두 항목만 수출감소세를 나타냈다.

- '23년 1-10월 수입은 직물제의 3236만 달러 수(17.9% 증가)로 수입품목 1위 유지했고,
  집적회로반도 2,208만불(11.4%), 기타금속광물 1710(31.4%)로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편직제의류는 1,579만불로 4.7%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어육은 1543만불(153.9%)를 보였으나, '22년 어육 총수입액 2,939만불 대비 절반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다. 갈치는 824만불(43.6%)가 수입됐다.
  알루미늄괴스크랩은 1,153만불 (83.4%)를 보였다. 상위 10대 수입품목 중 동괴스크랩 1,101만불(-55.1%), 가방 255만불(-19.8%), 신발 183만불(-52.6%)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수입폭이 2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4342	폴리에스터직물	46	0	45
2	7419	기타자동차	16	0	15
3	7411	승용차	37	0	36
4	6134	아연도강판	37	0	36

5	2140	합성수지	16	0	16
6	7251	건설중장비	15	0	15
7	7412	화물자동차	15	0	14
8	3203	타이어	6	0	5
9	2262	의약품	6	0	6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0	0	1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4342	폴리에스터직물	40	0	40
2	7419	기타자동차	38	0	38
3	7411	승용차	36	0	36
4	6134	아연도강판	31	0	31
5	2140	합성수지	21	0	21
6	7251	건설중장비	16	0	16
7	7412	화물자동차	9	0	9
8	3203	타이어	7	0	7
9	2262	의약품	7	0	7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6	0	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4412	직물제의류	0	32	-33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0	24	-25
3	1190	기타금속광물	0	21	-21
4	4411	편직제의류	0	18	-18
5	0451	어육	0	29	-30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10	-10
7	6221	동괴및스크랩	0	28	-28

8	0413	갈치	0	6	-7
9	5113	가방	0	4	-4
10	5212	신발	0	4	-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4412	직물제의류	0	32	-32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0	22	-22
3	1190	기타금속광물	0	17	-17
4	4411	편직제의류	0	16	-16
5	0451	어육	0	15	-15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12	-12
7	6221	동괴및스크랩	1	11	-10
8	0413	갈치	0	8	-8
9	5113	가방	0	3	-3
10	5212	신발	0	2	-2

<자료원 : 한국관세청>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ㅇ 폴리염화비닐

HS CODE	3904.10	수입액 (US$백만)	110
수입관세율(%)	2.5	대한 수입액 (US$백만)	4
선정사유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이 322%에 달하며, 한국산 제품은 2022년 기준 수입국 13위(1,471,097불)로서 시장점유율 1.3%에 불과했으나 2023년 들어 수출이 빠르게 늘어 4,686천불(322%) 수출을 달성함		
시장동향	모로코 경제붐(도심확대, 월드컵 유치에 따른 파생 건설수요 증가)으로 폴리염화비닐 수요 부대하여 늘어날 전망		
경쟁동향	이집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산이 주요 상위 경쟁국임		
진출방안	모로코 내 주요 화학수입상 위주로 마케팅 활동하여 KOTRA 붐업코리아 계기 상담추진		

ㅇ 산업용 윤활제

HS CODE	3403	수입액 (US$백만)	45.6
수입관세율(%)	2.5	대한 수입액 (US$백만)	0.11
선정사유	젤타입의 윤활제는 마찰 감소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모로코는 자동차산업, 항공, 전자,전기제품에 윤활제 적용 수요가 많다. 2023년 4월말 누계 대 모로코 수출액이 110,000 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42% 증가한 수치이다.		
시장동향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모로코 윤활제 시장규모는 115백만 리터로 2016-2026년 동안 매년 성장률 5%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동향	다음과 같은 글로벌, 모로코 자체 정유회사들이 경쟁사이다 (모로코) Afriquia, OLA Énergie, Pétrom, (해외) Royal Dutch Shell PLC, TotalEnergies, Shell		
진출방안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주수요처 대상으로 주요 마케팅 행사(자동차, 건축 전시회 등)에 참가하거나 무역관 지사화사업에 참가해 시장개척활동할 수 있다.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ㅇ 화장 및 이미용 기술

선정사유	모로코에 한류 인기로 한국 여성의 매끈한 피부를 부러워하며, 한국 미용기구와 시술을 배우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모로코 바이어로부터 한국내 뷰티아카데미의 교육서비스 참가 전에 한국 회사 존재여부나 신뢰도를 무역관에 묻는 경우가 있었다.
시장동향	모로코 내 뷰티샵이 늘어나는 추세로 모로코 화장품 전시회 Cosmetista EXPO(5.27-5.30, 카사블랑카)에도 화장품 외 이미용 시술기구 등을 선보인 곳이 많았다.

경쟁동향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고급 화장품 브랜드계열의 뷰티 아카데미는 고급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시장은 각국 화장품, 이미용 기구 판매기업이 본국엔지니어를 모로코로 파견하거나 자국에 초청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출방안	모로코 내 거점도시(카사블랑카, 마라케시, 탕헤르, 라바트 등)의 뷰티샵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Morocco-European Union association agreements	EU	1996-02-26	2000-03-01	
Morocco-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미국	2004-06-15	2006-01-01	
Morocco-Turkey Free Trade Agreement	터키	2004-04-07	2006-01-01	
Morocco - EFTA Free Trade Agreement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1997-06-19	2000-03-01	
The Agadir Agreement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2004-02-25	2007-03-27	
Association Agreement(AA)	영국	2019-10-26	2021-01-01	
Morocco-UAE Free Trade Agreement	UAE	2001-06-25	2003-07-09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가나 외 아프리카 54개	2022-04-19	2022-05-18	가입표명 46개국/54개국(85%) 비준 완료

〈자료원 : Ministry of Industry, Trade, Investment and Digital Economy of Foreign Trade〉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Morocco-Canada Free Trade Agreement	Canada	2011년 1월, 양국총리가 FTA 협상 시작 발표이후 1차(2011년 10월), 2차(2012년 3월), 3차(2012.6.18-22, 오타와)까지 진행됨.	

Morocco-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Argentina, Brazil, Paraguay, Uruguay	Mercosur 의장국인 브라질과 2018년 중단된 협상재개 논의	
Morocco-Israel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	Israel	2022년 2월 21일, 양국 산업부 장관이 사인을 하였으며 발효를 위한 공동 위원회를 구성키로 함	
Korea-Morocco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Korea	2023년 8월 25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흥국(모로코 포함) 대상 경제협력파트너십 협정체결 의향 있음을 공개하여 모로코 정부 측에서도 관심보임	

〈자료원 : Morocco Investment Development Agency〉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7209,7210,7211,7212,7225,7226	냉연판 및 코팅판(cold rolled sheets and plated or coated sheets)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ㅇ 부과기간 : 2021.1.1 ~ 2024.12.31	ㅇ 판정결과 · 1년차 : 13.75% · 2년차 : 12.5% · 3년차 : 11.25%
2	7208,721113,721114,721119,722530,722540,7226200011,7226200021,7226200030,7226200040,7226200051,7226200052,7226200059,722691,7226999091,7226999099	열연판(Hot-rolled sheets)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ㅇ 부과기간 : 2023.6.19 ~ 2026.6.18	ㅇ 판정결과 · 1년차 : 23% · 2년차 : 22% · 3년차 : 21% * 2023.5.25 : 일몰재심후 규제 연장 결정

수입금지품목

수입 수량제한 대상 품목은 폭발물 등 극히 한정돼 있으나, 공중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치품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재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리 정책을 취하고 있다.

모로코의 대한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냉연판 또는 코팅판 품목에 대해 2021.12.15일부로 세이프가드 기간이 3년 연장되었는데 2022년은 13.75%, 2023년은 12.5%, 2024년은 11.25%가 적용된다. 열연판 경우, 기간에 따라 차등있는데 '24.6.19~'25.6.18 : 22% '25.6.19~'26.6.18 : 21%이 적용된다.

2023년 12월 14일 기준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자료실(tongsang.kita.net) 확인 결과, 모로코 경우 수입규제 품목으로 다음 3가지 항목이 확인된다.

ㅇ 품목명 : 금속 가로등(Metal Street Lamps)
ㅇ 규제국 : 모로코 유형 : 세이프가드 품목분류 : 철강/금속 규제형태 : 조사종료
ㅇ HS코드 : 7308.20.00.00 7308.90.00.00
ㅇ 제소일 : 제소일 정보 없음 조사개시일 : 2021.04.23.

ㅇ 품목명 : 열연강판 (Hot-rolled sheets of steel)
ㅇ 규제국 : 모로코 유형 : 세이프가드 품목분류 : 철강/금속 규제형태 : 조사종료
ㅇ HS코드 : 72.08 72.11.13 72.11.14 72.11.19 72.25.30 72.25.40 72.26.20.00.11
72.26.20.00.21 72.26.20.00.30 72.26.20.00.40 72.26.20.00.51

72.26.20.00.52 72.26.20.00.59 72.26.91 72.26.99.90.91 72.26.99.90.99 7308.20.00.00 7308.90.00.00

ㅇ 세이프가드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 부과 : 2019.09.27. * 한국 부과조치 제외

ㅇ 제소일 : 2019.05.27. 조사개시일 : 2019.05.27.

ㅇ 2023.01.26 : 일몰재심 개시 (공고)

ㅇ 품목명 : 철강 용접 파이프 및 튜브(Welded Tubes and Pipes, of Iron or Steel)

ㅇ 규제국 : 모로코 유형 : 세이프가드 품목분류 : 철강/금속 규제형태 : 규제

ㅇ HS코드 : 7306.19.10.90 7306.19.99.00 7306.30.10.99 7306.30.99.00 7306.50.10.90 7306.50.99.00 7306.61.10.00 7306.61.90.00 7306.69.10.00 7306.69.99.00 7306.90.10.90 7306.90.99.00

ㅇ 재심 최종판정 : 2023.10.05 세이프가드 부과 지속 - (1년차) 22% - (2년차) 21% - (3년차) 20% * 한국은 부과 면제

ㅇ 일몰재심개시 : 2023.06.13

ㅇ 원심최종판정: 2020.09.07 조사개시일 : 2019.10.07.

한편,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자료실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모로코 산업부 공고문 확인 결과, 다음 항목이 조사 시작했으며 향후 규제될 가능성 있다.

ㅇ 품목명 : 강철 튜브/파이프

ㅇ 규제국 : 모로코 유형 : 세이프가드 품목분류 : 철강/금속 규제형태 : 조사

ㅇ HS코드 : 7306.19.1090 7306.19.9900 7306.30.1099 7306.30.9900 7306.50.1090 7306.50.9900 7306.61.1010 7306.61.1090 7306.61.9000

ㅇ '23.12.14 : 현재 해당 품목 관련 세이프가드적용 수치는 23%, 2023년 12월 14일까지 지속. 해당 결정 연장여부는 조사개시를 통해 결정 예정.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ㅇ 주요 인증

1) 이동통신기기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의 통신기기 심사를 거쳐야 수입 가능하다. 모로코는 중고 핸드폰 수입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 통신감독위원회: Agence Nationale de Réglementation de Télécommunication

모로코의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 산업을 관장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각 통신 업체를 통제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또한 통신법 제정의 틀을 제공하며, 통신요금 규제 및 주파수 사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전자, 전기

유럽 규격 CE 마크가 모로코 내에서도 유효하다. 가전제품에 대한 모로코 정부당국의 별도의 인증 및 시험(Test) 제도는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다.

3) LED 조명기기류

모로코에 LED조명(등기구, 램프) 판매 유통 시 강제 인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4) 레이저 기기류

통관과정에서 따로 요구되는 인증사항은 없으나 제품 세부사항에 따라 인증사항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므로 확인해야 한다.

5) 금속
ISO, RADIO 등의 인증이 필요하다. 모로코는 스크랩(폐철)을 다른 산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속류에 관한 심사가 까다롭다.

6) 보석, 액세서리류
모로코 세관(DOUANE)에서 인체 유해 광물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검사 후 자체 인증 표시를 찍는다.

7) 목재 및 펄프
ISO 외에 따로 받아야 하는 자체 인증은 없다.

8) 식품
모로코 수입관리청(EACCE: Etablissement Autonome de Contrôle et de Coordination des Exportations)에서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농수산물, 식품에 관해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 경우 라벨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시돼야 한다. 가공식품 제품은 품목명, 내용물(ingredients),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 국명, 내용물 무게 등이 표시된 라벨링이 필수이며, 통조림 제품은 제조일 및 유효기간이 표시돼야 한다.
모로코에 할랄(Halal)을 의무화하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2013년 9월 26~27일 모로코 메크네스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할랄 엑스포(Expo Halal International)에서 Abdelkader Amara 장관은 모로코 할랄인증을 공식 발표했다. 모로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할랄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제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9) 의약품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돼야 한다.

TBT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국제표준(ISO), 프랑스표준협회(AFNOR) 등 유럽의 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기구로는 산업표준청(SNMIA)과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산업표준청(SNMIA)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LPEE)은 ISP/IEC에 의거해 제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모로코는 WTO 기술장벽협정(TBT)의 당사자로서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 규격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자문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6월 20일부터 산업용 수입제품에 대해 적합성 검증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되었다. 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로코 국가기술 표준 및 규정 준수를 통한 제품의 적합성 및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해당 품목 수입을 위해 모로코 내 연구소(LAB) 등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모로코 정부가 3개 글로벌 검사기관(APPLUS FOMENTO, BUREAU VERITAS, TUV RHEILAND)과 아웃소싱 협약을 체결, 수출국에 위치한 해당 검사기관 사무소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 Certificates of Conformity)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아래와 같다.

- Automobile spare parts: Tires, Batteries, Brake linings, glazing, Filter elements, Mechanical control cable
- Construction products: Ceramic tiles, Cement, Sealing sheets, sanitary products, taps, Plastic tubes
- Wooden panels
- Gas appliances: Gas heaters, Gas water heaters
- Wire rod and concrete reinforcing iron
- Articles of clothing other than work clothing
- Electrical products: Chargers for mobile phones, circuit breakers

기타

모로코는 최근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자국 내 생산을 통한 수입대체, 해외 온라인 구매에 대해 관세 신규 부과, 수입시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로코 세관(Administration of Customs and Indirect Taxes, ADII)은 2022년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

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비상업적 목적의 MAD 1,250(125 달러) 이내 물품만 관세가 면제된다. 그 외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관세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모로코 세관(ADII)은 2022년 9월 26일 수입통관시(육상,해상,항공) 수입물품을 미리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자는 세관의 수입물품 등록시스템인 BADR (Base Automatisée des Douanes en Réseau, Automated Network Customs Database)에 물품명세 등 세부내용을 수입 신고 전 기한준수하여 등록해야 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ㅇ 현황

모로코 수입시장은 주류 및 식료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품의 수입을 허용할 만큼 내수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 조치는 없으나 일부 불요불급 소비재, 사치품, 모로코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어 왔다. 정부가 교역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과 아프리카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우디와 직접 해상 무역로 개척에 합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교역의 유럽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최근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세율을 지속 인상하였는데 현재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0%, 2.5%, 10%, 17.5%, 40%로 나뉜다. 기존에는 최고 관세율이 25%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 30%, 7월 26일부로 다시 40%로 인상하였다.

ㅇ 개요

모로코로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가 대표적이다. 기존 재정관세의 일종인 수입 국고 공제세(PFI)는 폐지돼 수입관세에 포함됐다.

ㅇ 수입관세: D.D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FTA 체결, 제품의 특성과 자국산업 발달 여부에 따라 영세율(0%)로부터 2.5%, 10%, 17.5%, 40%가 통상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계 구조를 취하고 있다.

ㅇ 수입국고 공제세: PFI

모든 수입상품에 공통 적용되며 세율은 15%로 고정이다. 단, 투자진흥 및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나 그 부품, 부분품, 부속품은 수입국고 공제세가 면제된다.

ㅇ 내국 소비세: TIC

수입관세(D.D) 및 수입국고 공제세(PFI)와는 달리 특정 카테고리의 수입상품이나 청량음료, 포도주, 맥주, 설탕 등과 같은 국내산 제품에 부과되고 있다. 비알코올성 음료는 100리터당 7~20디르함, 맥주는 100리터당 550디르함, 담배는 52%, 에너지 제품은 톤당 7디르함이 부과된다.

ㅇ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국내세이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세율은 긴요긴급품목(일부 식품)에 최저 7%가 부가되며, 서비스비용 10%, 차, 커피 제품에는 14% 일반 상품의 경우는 20%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단, 의료장비 및 기기 일부, AIDS/당뇨/천식/심장병 등 일부 질병 치료 약, 비영리 단체용 자본재, 장비, 기구, 산업용 기계, 플랜트류, 공공단체에 대한 선물, 원조품, 농산물 원료와 제품, 자본재와 부품·부속품, 세관에서 경제적 제도 일환으로 수입되는 원료 및 제품에는 면제된다. 또한 모로코에서 제3국으로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업체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나 면제는 불가능하다.

ㅇ 별정 예산 수입세: TPI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상품에 대해 0.25%의 수입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일반제품에 대해 20%)와

국내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세관에서의 경제적 제도하에 수혜를 받아 이루어지는 수입, 투자진흥에 필요한 자본재와 그 부품, 부분품, 부속품의 수입, 수입관세가 면제 또는 완전히 유보되는 조치하의 상품, 모로코와 특정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 및 협약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 면제되는 상품 수입은 예외에 해당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주요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모로코 재무부 산하 세관당국에서 발간되는 수입 관세율표에 상세히 명시돼 있다. 또한 모로코 세관(Administration des Douanes et Impots Indirects) 사이트 (www.douane.gov.ma)에서 간략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HS Code 검색 및 품목별 관세율, 특정나라와 모로코와의 협약에 대한 관세율,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부 품목이 많으므로 정확한 HS Code 10자리를 모두 입력할 때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관세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로코 HS Code를 통한 관세율은 http://www.douane.gov.ma/adil/을 통해 찾을 수 있다.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ㅇ UNCTAD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각국별 정기선 해운 연결성 지수(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LSCI)에 따르면, 모로코는 74.12점(2006년 1분기 중국=100 기준)으로서

아프리카의 이집트 74.91가 근소한 차이로 1위로 올라서 모로코는 2위이며, 남아공, 가나, 토코 등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점수차이를 벌이고 있다.

ㅇ 주요 무역항 : 모로코는 북부 탕헤르(Tangier) 지역에 유럽 등 해외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대규모 산업단지(Free Zone 등)를 운영하고 있어 산업재 관련 화물은 인근의

Tangier Port를 통해 주로 운송된다. Lloyd's 리스트에 따르면 Tangier Port는 전세계 항구 중 25위권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주요 항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재 관련해서는 모로코내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에 위치한 Casablanca Port를 통해 주로 운송되며 Jorf Lasfar Port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및 광산

활동 관련하여 에너지 및 광물이 주로 운송되고 있다.

ㅇ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UNCTAD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내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8,835,181 TEU(2022), 8,457,129 TEU(2021), 7,000,928 TEU(2020)를 달성했다.

탕제메드 항만청(Tangier Med Port Authority, TMPA)에 따르면 2022년 Tangier Port의 물동량은 전년대비 6% 증가하며 759만 TEU를 기록했다. Casablanca Port, Jorf Lasfar Port 순이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ㅇ 주요 공항: 모로코의 국제공항은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 국제공항이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공항이며 이외에 남부 마라케쉬 국제공항은 유럽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ㅇ 주요 공항 이용객 : 2023년 1-11월 모로코 방문객은 2,473만명이었다. 이는 팬데믹 전인 2019년 2303만명 대비 7.38%가 늘어난 숫자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2,230만명, 내국인은 243만명이었다.

공항별 이용객은 카사블랑카 Mohammed V공항 897만명, 마라케시 627만명, 아가디르 208만명, 탕헤르 176만명, 페스 159만명, 라바트 107만명순이다.

ㅇ 항공화물량 : 2023년 1-11월 모로코 공항의 항공화물량은 70,024톤이었다. 카사블랑카 공항의 화물량이 64,613톤으로 92.2%를 차지하며 절대적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탕헤르 3, 130톤, 3위 라바트 1,320톤, 우즈다 321톤순이다.

3) 유의사항

모로코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해상을 통한 제품운송시 한국으로부터 제품 인도기간이 통상 45일 이상 소요되며 다양한 경유지가 있을 수 있기에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항공편 또한 한-모로코간 직항노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파리, 두바이 또는 이스탄불 경유를 통한 이동이 일반적이다.

4) 기타 참고사항

현재 모로코에는 한국계 물류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에서 물류계약 체결 시 현지 파트너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대란으로 크게(20ft US$15,000) 올랐던 해상 운송비용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팬데믹 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질 않고 선적수요가 많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운임 및 일정을 사전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ㅇ 개요

수입상품의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와 수입심사로 시작해 물품검사, 세금(관세)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모로코 정부는 투명한 통관행정 정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전자통관 온라인 플랫폼 도입을 통해 통관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모로코 관세청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사이트(www.portnet.ma)를 통해 120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품신고, 관세 시뮬레이션 및 온라인 납부 등이 포함된다.

ㅇ 수입 신고

모로코와 제3국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품교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통관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ENGAGEMENT)와 함께 수출입화물 도착통지서(BON DE DELIVERY),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품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LIST), 세금감면 대상 화물(어망 등 어획장비, 선박용 엔진, 건설용 기계 등 자본재)인 경우 증빙서류, 수출용 원자재는 관세 환급을 위한 증빙서류,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면장은 수량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입상품에 한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은 상공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에 명시되고 있다.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는 수입면장은 6부의 사본이 구비돼야 하며, 수입 약정서는 수입면장 대상이 아닌 상품 수입 시 요구되며, 사본 5통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상공부 장관에게 사전 비자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사전신고서(DPI)는 국내생산에 손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위험이 있는 제품을 수입할 때 요구되고, 이는 상공부 장관이 발급하며 6통을 준비해야 한다.

모로코 세관의 통관절차는 상품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총 8부로 구성된 통관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관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상품이 통관된다. 수입 면장과 수입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세관 통과기준 6개월이다. 이 기간의 기산일은 수입 약정서의 경우 지급은행에 신청할 때부터이고, 수입 면장은 상공부 장관이 발급한 시점부터이며, 수입 사전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수입 면장과 수입사전 신고의 최초 조건을 수정(Amend)할 경우에는 다시 수입자격을 요구하는 대상이 된다. 수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수입업자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무역업자 색인표(Fichier Central des Importateurs)에 등록돼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해지고 있으며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다.

ㅇ 물품 검사

물품 검사 시에는 화물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수량, 품목, 규격 등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수량이 다수면 견본을 지정해 검사하기도 한다. 물품 검사는 통상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기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보세구역에서 실시한다.

기타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요청을 검토해 세관원이 현장으로 파견돼 검사한다. 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등을 이유로 수입품을 타 세관 관할구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 전체 수입가격 상당액의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 전에 이동시킬 수 있다. 아직 송장 상품거래서 가격조작(Invoice under value)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나,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ㅇ 관세 납부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 증빙을 발부하게 돼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 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세관 당국의 자의적인 과세 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워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돼,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 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통관 시 유의사항

ㅇ 화물 반송(SHIP BACK)

모로코에서는 컨테이너의 반송(SHIP BACK) 시 사유를 불문하고 CONSIGNEE의 인수확인증(ACCEPTANCE LETTER)이 필요하므로, 바이어가 인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화물 반송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반송 결정까지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 컨테이너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ㅇ 수입통관증서(ATA까르네)

2017년부터 모로코 주요 공항에서 기존 X-Ray 통과 등의 형식적인 세관 검색에 비해 관세 책정 예상품목에 대한 문질 등이 추가된 검색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샘플, 전시회 물품, 테스트기기를 모로코 입국 시 지참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공식 통관 간소화 및 관세면제 관련 문서 제시가 요구된다.

해당 서류 중 국내 발급 ATA까르네는 출국 전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행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국내에서 ATA까르네 발급을 받지 못해 모로코 입국 시 임시 ATA까르네 발급을 희망할 경우, 제품 가격이 미 달러로 표시된 영문 혹은 불문 산업송장 및 해당 물품이 테스트 혹은 전시회 등 ATA까르네 신청에 어긋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해당 제품 반출 기업명의 공식 영문 혹은 불문 레터를 출국 시 지참해야 한다.

ㅇ운송 및 통관절차가 어려워짐

최근 컨테이너로 한국에서 모로코로 물건을 보내는 선박 편이 감소하여 일정을 잡는 것이 과거대비 많이 어려워지고 운임또한 크게 인상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의 경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무역 적자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추가서류 요구, 통관시간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주의를 요한다

ㅇ 모로코 세관, 수출예정 품목 적합성 담당기관 제한조치 발동

- ’23.7월초 글로벌 규격인증 서비스 기관 중 다음 2곳을 배제하여 대 모로코 수출기업들 인증기관 중 배제기관이 아닌 곳을 이용해야 한다.

  * 배제 조치 적용기관: Tuev, Veritas

- 품목 인증기관 : 품목적합성(Certificate of Confirmaty) 서류 발급
- 적용대상 : 모로코 수입되는 품목적합성 제출 의무인 모든 품목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Carre - SMTR

주소	PLATEFORME LOGISTIQUE ONCF MITA, BD MOULAY ISMAIL, CASABLANCA, MAROC
전화번호	+212 522 40 84 58/61
이메일	contact@carre.ma
홈페이지	http://www.carre.ma

ㅇ DB SCHENKER MAROC

주소	Bd Moulay Slimane, parc Oukacha 2, Ain Sebaa, 20250, Casablanca, Maroc
전화번호	+212 664 71 64 48
이메일	schenker.maroc@dbschenker.com
홈페이지	http://www.dbschenker.com/ma
비고	2017년 "AEO Safety and Security" customs label 획득. 이는 모로코 내 세관의 편리와 안전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받은 최초 사례임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UNCTAD에 따르면, 모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21.5억 달러(2021)를 기록했다. 2018년은 35.6억 달러로 아프리카 투자유치 4위국으로 발돋움하였으나 2019년은 1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2% 줄었고, 2020년 또한 14.2억 달러에 그쳤다. 2021년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21.5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2018년 이후 아프리카 투자유치국 5위권 밖으로 밀려나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환경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모로코는 2020년 73.4점으로 전 세계 53위를 기록하였다. 자금조달(119위), 재산권등록(81위)에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건축관련 인허가(16위), 세금납부(24위), 전기이용(34위) 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년대비(60위)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모로코는 자본, 기술 제약으로 인해 자체적인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모로코 정부는 외국인의 소유권을 제한했던 모로코화법(Moroconization, 1973년)의 대부분의 조항을 1989년부터 폐지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 개방도를 높이고 경제안정을 확고히 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쌓는 것에 집중했다. 이에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돼 외국인은 자유롭게 모로코에 투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외환에 대한 자국화폐(디르함화)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도입하거나 구체화했다. 특히 금융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를 촉진코자 금융분야의 자유화를 가속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 1996년 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을 중심으로, 상법, 기업법, 노동법 등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규율하고 있다. 투자법은 과거 분리돼 있던 투자 관련 법규를 종합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투명성 부족, 부패 및 관료주의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의지는 강하지만, 집행기관의 유지활동은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신투자법의 일환으로 금융 및 해외투자부 산하에 투자촉진사무소를 설치했으며 투자에 관련된 외환의 자유송금을 보장했고 외국인의 모로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에의 참여, 114개 공기업의 사유화가 정부와 외국기업의 직접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제조업, 관광산업, 광업, 수산업, 수공예업, 부동산 및 수출의 7개 투자장려업종을 선정하고 중요도와 투자지역에 따라 우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ㅇ 신투자법은 조세부담 경감,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투자 시 수출지원 등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최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제2항).

ㅇ 투자 증진의 필수적인 초기 시설 설비, 장비와 부속 부품에 대한 관세는 최소 2.5%, 최대 10%(종가세: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까지 적용된다(제3항).

ㅇ 투자를 목적으로 수입 혹은 모로코에서 구매한 초기 시설 설비, 장비와 부속 부품의 부가가치세는 면세될 수 있다(제4항).

ㅇ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사업체는 회사설립 초기 5년간 소득세(IGR)가 면제되며 향후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제

8항).

신투자법은 분야별로 분리돼 있던 과거 투자 관련 법규들을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대체하고 있다. 신투자법이 담고 있는 주요 투자유치 조치는 조세의 최적 배분을 통해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특혜 조세제도를 부여하며, 투자 관련 절차의 단순화 및 투자가에 부합된 개런티를 강화하고 OFF-SHORE 금융, 수출자유 지대 및 산업용 면세 창고(EIF) 제도 진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로코 투자 진흥청(AMDI, Moroccan Investment &Export Development Agency)은 투자증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 정부기관이다. 모로코 투자정보, 행정기관 컨택 및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사는 수도인 라바트에 위치해 있다.
모로코 투자진흥청(AMDIE)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AMDIE | Moroccan Investment &Export Development Agency
www.amdie.gov.ma
Address: Attine Avenue , business building n°5, 1t floor, Hay Riad, Rabat, Morocco

투자인센티브

모로코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투자자들이 요구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정부협약 혹은 투자계약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재정적, 세금적, 관세적 혜택을 제공코자 한다.

[주요 투자 혜택]
① 투자진흥기금(FDII)을 통한 특정 투자비용 환급
② 특정 산업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한 하산 2세 기금
③ 재정법 No. 12/98의 7.1 조항에 따른 관세 면제
④ 일반세법 123-22-b 조항에 따른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각각의 주요 투자 혜택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투자진흥 기금: 'Strategic project' 혹은 'Structuring project' 범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혜택을 제공

ㅇ Strategic project 자격요건
a) 세전 5천만 MAD 이상의 투자 혹은 최소 200여 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b) 세전 2억 MAD의 공공조달 계약 체결

ㅇ Structuring project 자격요건 : 아래와 관련 세전 2천만 MAD 이상의 투자 또는 혹은 최소 5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a) 이전에 실행된 적이 없거나 기존 경제 생태계 내 한 분야의 가치 사슬을 보완할 만한 사업
b) 천연자원이나 재활용 제품에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
c) 지역 통합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로코 기반의 산업적 행위
d) 현지기업의 소싱과 관련된 프로젝트
e) 엔지니어링과 R&D 센터를 위한 프로젝트

ㅇ 혜택
a) 아래와 같은 유무형 투자에 대해 세전 최대 30%까지 지원 혜택
. 부동산, 전문 빌딩, 산업 장비의 구매 혹은 임대 비용
. 기술적 조력 요금
. 연구와 개발, 혁신과 창의에 관련된 지출
(새로운 모형/ 컬렉션 개발 비용, 숙련직 노동자 임금을 고려, 통제와 시험에 관련된 요금, 컬렉션의 구매, 외부 전문인력)
. 사업을 실제적으로 개시한지 처음 3년 동안의 창업 비용
b) 추가 수출성과의 최대 10%까지 수출장려 보너스 지급

c) 수입 대체에 대한 연간 포상

. 해외 수입자재(input purchase)의 최소 60%를 모로코 공급업체로 전환한 기업은 수입 대체액의 최대 2%까지 보너스 지급

d) 모로코에 기업설립에 대한 연간 보조

. 2015~2020년 기간에 모로코 소재 생산공장이 없는 외국기업은 모로코에서 처리된 주문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연간 매출의 최대 2%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 하산 II 기금

ㅇ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a) 총 투자액이 세전 1천만 디르함 이상인 새로운 투자사업(신규 또는 확대)

b) 자본재 투자 총액이 세전 5백만 디르함 이상(수입관세 제외)

c)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현지법인 자격이 있는 투자자

. 자동차/항공/전자 산업, 화학산업, 제약산업 등

3) 수입관세 면제

1억 디르함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와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경우, 업체가 직접 구입한 투자를 위한 장비/기기/재료 등 및 그 부품/부속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단 위에 언급된 정부와의 계약체결 일자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수입되는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다.

4)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1억 디르함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와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경우, 업체가 직접 구입한 투자를 위한 장비/기기/재료 등 및 그 부품/부속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 위에 언급된 정부와의 계약체결 일자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수입되는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다.

제한 및 금지(업종)

모로코의 몇몇 산업분야는 외국인의 투자가 아예 제한돼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허용돼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농경지의 매입은 외국인은 법적으로 농업용지 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지만, 임차는 허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 프랑스인들로부터 몰수해 국유화한 농업용지의 장기임대 공개입찰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한 적이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매각대금 해외송금은 자유로움)

그러나, 관광 안내나 산악 안내업은 모로코인들에게만 허용된다. 또한 모로코 법률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지점 또는 여타 자격으로 운영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외 기업은 모로코 내에서 1년 이내 기한의 채권 발급이 불허된다. 전문직종인 공증업, 이슬람 종교 공증인, 회계사 등은 외국인에게 허가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분야로는 환경, 문화서비스, 수도/전기 공급, 사설교육, 전문 서비스 등이 있다. 모로코는 문화서비스 관련 기존 또는 향후 양자 및 다자 협약에 의해 국가별 다른 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전기공사와 수도공사가 지사를 통해 판매, 민간에게 경영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설교육 분야는 학교 전 사설교육, 유아원, 초등 중등학교과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교원과 보조교원 포함)에 대해 고용허가 획득 조건부로 외국인에 의한 초 중등 사립학교 운영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서비스 분야(회계사, 건축사, 법률서비스, 건축 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의사, 의료 및 유사기관 개설, 기타 의료업, 제약업, 운송업, 필름 배급 및 제작, 수산업, 공모 시장, 은행업, 보험업, 통신업, 담배 판매, 항만서비스업 등)는 강력한 규제를 받거나, 시장 접근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조건부 허용되며 거주, 자격요건, 내국인 동업자와 같은 영업주소, 양자협약에 의한 상호 허용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모로코는 2014~2020 산업촉진계획 수립 및 전략적 시행을 통해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14%에서 23%로 확대를 목표로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등 핵심 제조분야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항, 항구, 철도 등 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히 유럽과 가까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자유무역지대(Free Zone)를 설치,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외국기업 유치 및 수출 확대에 힘쓰고 있다.

모로코 최대 항구인 탕헤르 항만청에 따르면 2022년 탕헤르 항구의 처리물량은 총 107,822백만 톤이며, 이는 전년 대비 6%가 늘어났으며, 모로코 전국 물동량의 약 54%를 탕헤르에서 처리하였다.

ㅇ 주요 지역별 자유무역지대
- 탕제: Tanger Free Zone(모든 업종), Tanger Automotive City(자동차산업)
- 케니트라: Altantic Free Zone(자동차산업)
- 카사블랑카: Midparc(항공산업)
- 라바트: Technopolis(Offshoring, R&D)

ㅇ 자유무역지대 주요 입주 혜택
- 최초 5년간 법인세 면제 및 이후 15% 법인세율 적용 (과거 5년 이후 8.75%의 저율 법인세 적용 대비 인상됨, '20.1.1일 이후)
- 최초 5년간 소득세 면제 및 이후 20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 80% 경감
- 최초 15년간 사업세(Professional Tax) 면제
- 회사 설립 및 토지 취득 관련 등기료 및 인지세 면제
- 자유무역지대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수입관세 면제 및 세관 절차 단순화"

산업단지

ㅇ TANGER FREE ZONE

규모	400.00ha
위치	Tanger-Assilah / Tangier and Region
임차료	ㅇ 토지 임차비용 - 573m2: 54,435 DH / Month - 961m2: 91,295 DH / Month - 982m2: 93,290 DH / Month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관할기관 : Tanger Med Zone ㅇ 연락처 : +212 (0) 539 393 405

ㅇ Tanger Automotive City

규모	80.00ha
위치	Tanger-Assilah / Tangier and Region
임차료	ㅇ 토지 임차비용 - 2,889m2: 216,675 DH / Month - 4,322m2: 324,150 DH / Month - 4,583m2: 343,725 DH / Month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관할기관 : Tanger Med Zone ㅇ 연락처 : +212 (0) 539 394 155
비고	ㅇ 주요 진출 기업 - Hands8(한국, 핸즈코퍼레이션, 알루미늄 자동차휠) - SJM(한국, SJM, 자동차 벨로우즈) - Furukawa Electric (일본, 전장장치) - Valeo Vision (프랑스 , 자동차 조명) - Europac (스페인, 포장재) - Alfa GOMMA (이탈리아, 유압호스)

ㅇ Altantic Free Zone

규모	345.00ha
위치	Ameur Seflia / Kénitra / Rabat and Region
임차료	ㅇ 토지 구매비용 - 1,938m2: 1,162,800 DH - 1,945m2: 1,167,000 DH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관할기관 : MEDZ ㅇ 연락처 : +212 (0) 537 576 678
비고	ㅇ 주요 진출 기업 - PSA (프랑스, 완성차) - Saint Gobain (프랑스, 자동차유리) - Delphi (미국, 케이블) - Hirschmann Automotive (오스트리아, 케이블) - Leaf (미국, 케이블)

<자료원 : 모로코 통상산업부>

주요 지역별 여건

ㅇ Tanger 지역

모로코의 산업활동 강화,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모로코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Tanger Med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Tanger 항구의 장점인 유럽과의 인접성을 살려 항구단지 건설, 물류유통 및 산업지대 개발을 추진하였다. 지난 2007년 7월, Tanger Med 신항만의 첫 번째 컨테이너 부두 개방 이래 2008년 8월 두 번째 컨테이너 부두가 개방되었다. Tanger Med 신항만은 인근에 11개의 국제항이 있으며 항만을 포함해 총 2,000ha 규모를 자랑하며 북아프리카 최대 국제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인근 산업단지인 'Free Zone'은 자유무역지대로, 500ha의 부지에 자동차, 부품소재, 섬유·의류 분야 수출형 제조기업 약 400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수 있다.

Tanger Med 신항만은 자유무역지대와 고급 휴양지,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돼 경쟁력이 있으며, 유럽 기업들이 모로코를 생산기지로 점차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자유무역지대는 향후 주요 EU 생산기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

Tanger Med항은 2022년, 전년대비 6%가 증가한 759만 TEU 컨테이너를 처리하였는데 Liquid Bulk는 8,745천 톤(9%) , Solid bulk는 404천 톤(18%) 물동량을 달성했다. 탕헤르항은 World Bank와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가 공동으로 분석하는 World Container Port Performance Index 2022 (CPPI)지수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모로코 정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 부족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대 모로코 직접투자액(Inbound FDI)은 21.5억 달러(2021), 모로코의 해외직접투자액(Outbound FDI)은 5.0억 달러(2021)를 달성했다. 팬데믹 전에 비해 각각 절반 규모로 축소됐으나 차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용 원재료 가공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한 편이라 대 모로코 직접투자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모로코 정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 부족 문제 해결 및 9%를 상회하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1989년 외국인의 소유권을 제한했던 '1973 국유화법'을 폐지한 데 이어 1990년 초 외국인투자법을 대폭 개정, 보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1992년 이후 대대적인 민영화 사업을 추진, 전력 및 통신 서비스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 EU 및 미국 등 외국 기업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 항공 등 제조업 및 광업(인광석) 분야 외국인 장기투자 지속 영향으로 '20년 외국인 직접투자 14.2억 달러, '21년 22.6억 달러, '23년 2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프리카 투자유치 4-5위 수준을 유지하다 '18년 이후 5위 권 밖으로 하락했다.
* '20년 기준 아프리카 5대 투자유치국 : 이집트, 콩고, 남아공, 에디오피아, 나이지리아

투자원천국별로 보면, '22년 기준 미국, 프랑스, 영국이 전체의 약 64.0%를 차지했다.
미국이 7.4억 달러로 외국 직접투자 1위, 프랑스가 3.3억 달러로 2위, 영국이 3.0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23년 9월 하순 한국 LG화학과 중국 화유 합작으로 자동차배터리용 양극재 공장을 모로코에 건설한다고 발표하여 모로코 투자 유치실적 대폭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모로코가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고 천연자원이 있다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IRA 감축기준으로 해외 투자시 중국측 지분률 상한선을 25%를 한다고 '23년 12월초 발표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은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투자를 이끌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3559	1720	1419	2266	2141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모로코의 대외 직접투자규모는 2017년 10억 달러를 초과한 후 2017년부터는 5-9억 달러선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2020년부터는 4.6억 달러(2020) , 5.0억 달러(2021)로서 2017년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최근 들어 모로코 인산염공사(OCP)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비료공장 투자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782	893	458	644	615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對모로코 투자는 110건, 약 1억 8,450만 불 수준(2023년 12월 투자금액 누계 기준)이다.
- 對모로코 투자는 1980년부터 집계되었으며 이를 투자액이 많았던 해 위주로 분석하면 1997년 숙박업 1200만 불, 1998년 제조업 2750만 불, 2000년 숙박업 1200만 불을 보인 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
- 2014년 광업 3,411만 불, 2017년 제조업 2,977만 불, 2018년 3,074만 불을 기록했다.
- 가장 투자액이 많았던 해는 광업 투자가 큰 몫을 차지한 2014년 3,464만 불이었다.
- 그 뒤 2020년 제조업 1,429만 불을 보인 뒤에는 투자규모가 연 300만 불 이하의 소액에 머물고 있으나 모로코의 뛰어난 입지와 전략적 가치로 인해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 2023년 들어 제조업 분야 투자 1,563천불 1건이 추가됐다. 마벨 모로코법인(자동차)으로서 모로코 내 법인설립 작업 중이다.
- 한편, 광림(자동차부품)의 경우, 탕헤르 자동차산업단지(Tangier Automotive City)에 공장 설립 중이며 2023년 가을철 준공될 예정이다.

2023년 10월 기준 모로코 진출 한국기업은 다음 6개사(법인 5, 지사 1)이다.

No	기업명	진출형태	진출년도	진출지역	투자형태	모기업
1	삼성전자 SEMAG 법인	판매법인	1995	카사블랑카	단독	삼성전자
2	LG전자 모로코 법인	판매법인	1998	카사블랑카	단독	LG전자
3	유라코퍼레이션 모로코	생산법인	2016	메크네스	단독	유라코퍼레이션
4	핸즈8 SA	생산법인	2017	탕헤르	단독	핸즈코퍼레이션
5	포스코인터내셔날모로코지사	지사	2019	카사블랑카	단독	포스코인터내셔날
6	SJM모로코 법인	생산법인	2019	탕헤르	단독	에스제이엠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3	1	2,949	3	2,952
2022	3	1	38,616	2	2,076
2023	2	1	1,563	2	1,56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판매법인으로서 삼성전자, LG전자가 있으며, 생산법인은 중견기업 3개사(유라코퍼레이션, 핸즈코퍼레이션, 에스제이엠)가 진출했다.
핸즈코퍼레이션(자동차용 알루미늄휠)은 탕헤르 자동차산업단지 내 연 800만개 알루미늄 휠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누적투자액은 약 4억 7천만 불로 모로코인 약 2천명을 고용하고 있어 모로코 진출 한국제조기업을 대표한다. (2018년 4월 10일 기공식)
유라코퍼레이션(자동차케이블)은 메크네스에서 모로코인 약 5백명을 고용하고 있다.
에스제이엠(배기가스용 벨로우즈)은 글로벌 시장점유율 20% 넘는 독일기업에 이은 세계 랭킹 2위 강소기업이다. 누적 약 800만 불을 투자했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	1	2,949	3	2,95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	0	38,116	1	1,57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500	1	5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	1	1,563	2	1,56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ㅇ SJM모로코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부품(벨로우즈)
모기업명	에스제이엠 SJM. Co., Ltd.

○ Samsung Electronics Maghreb Arab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IT전자
취급분야	휴대폰, 가전제품 등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 Electronics Morocco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IT전자
취급분야	휴대폰, 가전제품 등
모기업명	LG전자

○ Yura Corporation Morocco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와이어링 하네스
모기업명	유라코퍼레이션

○ Hands 8 SA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Aluminum alloy Wheel
모기업명	핸즈코퍼레이션

○ Posco International Morocco & West Africa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지사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철강 등
모기업명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현지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내국인자격을 부여받아 영리활동을 수행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IS) 또는 소득세(IR)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회사(SA)와 유한회사(SARL)가 가장 보편적인 현지법인의 유형이며, 기타 합자회사(SC)도 종종 사용되는 형태이다. 모로코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하나로 외국인의 현지법인 설립과 소유의 제한을 전면 철폐하여 현재 외국인은 모로코에서 현지법인을 자유롭게 설립, 확장하고 법인지분 100% 소유할 수 있다.

지사

상법에 의해 지사의 설립 자체는 자유롭고 간단한 서류 제출로 마무리되지만, 외국법인의 모로코 현지지점인 해외지사는 현지법상 내국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등 한시적인 특정 목적이 있거나 상업활동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며, 모로코 현지에서의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이 더 적합하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모회사 조사기관의 기능을 하며, 다양한 교섭인원(잠재고객, 공급업자 등)과 접촉, 교섭인원에게 정보 및 홍보, 광고를 제공한다. 가장 설립이 간단한 외국인의 현지 진출방식으로서 본사의 위임장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무역 및 상업활동이 금지되고 본사와 모로코 공공/민간단체 간 계약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활동만 허용되어 입찰참가 등 한시적인 제한적 활동에 적합한 진출유형이며 법인세(IS)는 연간 지출액의 8~10%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모로코는 다른 중동국가 대비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1995년 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이 2016년 개정되면서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돼 외국인은 자유롭게 모로코에 투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모로코는 투자보장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아랍투자보장협력기구와 협약을 맺어 투자자들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한국을 포함한 다수국가와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3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모로코는 전년 대비 0.8점 하락한 58.4점(100점 만점)을 획득해 전체 국가중 97위, 중동북아프리카지역(MENA REGION)에서는 7위(14개국)를 기록하였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ㅇ 독자투자: 모로코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현지법인 설립과 소유의 제한을 철폐(송배전 등 일부 국가전략사업 등 제외)하여 현재 외국인은 모로코에서 현지법인을 자유롭게 설립, 확장하고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모로코간 상이한 종교, 언어, 문화 및 비즈니스 관행 등이 존재하며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고 인적 네트워크가 사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독자투자시 초기 설립 및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ㅇ 합작투자: 모로코에서 추진사는 사업,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단독(100% 지분소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외에 현지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로코내 공식적인 투자제한은 거의 없으나 특히 현지정부 관련 사업 추진시는 모로코 고유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분쟁해결 무역분쟁 발생 시 모로코 정부기관인 조정 및 중재센터(CENTRE DE MÉDIATION ET ARBITRAGE)를 통해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TEL : +212 522 264 371 / EMAIL : contact@cciscs.ma / Website : https://cciscs.ma/features/cmac)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큰 규모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회사이다. 주주의 수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5인 이상이며 최소 납입자본금은 상장사는 300만 디르함, 비상장사는 30만 디르함이고 주식액면가는 최소 100디르함이다.

주식회사는 상업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법인(法人)의 지위를 가지는데 현금출자는 주식가액의 1/4 이상을 회사 설립 시에 납입해야 하며 현물출자는 일괄 납입해야 한다.

임원 임명 등 회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며, 이사의 수는 상장회사는 15명 이상, 비상장회사는 3~12명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회사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데 상장회사는 15명 이상, 비상장회사는 3~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개인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형태로, 현재 모로코에서 가장 많은 기업 유형이다.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자기의 출자액만큼 책임을 지는데 주주의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으로 구성되고, 자본금이 10만 디르함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의 1/4은 회사명의 은행계좌에 상시 예치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1명 또는 다수의 경영진이 제3자에 대해 개별 또는 연대 책임을 지며,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총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1명 또는 다수(연간매출액이 5천만 디르함 이상인 경우)의 회계감사관이 경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라고도 하며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모로코에서 역시 특별한 법인을 만들지 않고 단순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은 없으며, 법적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단순하고 낮은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고 사업자에게 큰 자유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무한한 책임이 전가되며 작은 규모, 자본 부족, 장기적인 전략개발에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법정의무는 아래와 같다.

- 은행 계좌 개설
- 분쟁 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회계장부 운영
- 주요 회계증빙 서류를 10년간 보관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Price Waterhouse s.a.r.l.

전화번호	+212 522 98 40 40
주소	35, bd Moulay Abdallah Ben Cherif 20330 Casablanca
홈페이지	https://pwcmaroc.pwc.fr/fr
이메일	latrachyounes@yahoo.f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ㅇ Deloitte Maroc

전화번호	+212 522 22 47 34
주소	288, bd Mohamed Zerktouni 20050 Casablanca
홈페이지	http://www2.deloitte.com
이메일	fbritel@deloitt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ㅇ CABINET BASSAMAT

전화번호	+212 522 26 68 03
주소	30 Rue Mohamed Ben Brahim Al Mourrakouchi - Casablanca 20000 Maroc
홈페이지	http://www.cabinetbassamat.com
이메일	contact@cabinetbassamat.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Benzakour Law Firm

전화번호	+212 661 090 579
주소	Espace Porte d'Anfa, 29 Rue Bab Mansour, Bâtiment A Casablanca, (20050) Morocco
홈페이지	http://www.cbllawfirm.com
이메일	r.benzakour@cbllawfirm.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H&H IP Law

전화번호	212 522 206969
주소	5 Bd Zerktouni, Residence la Tourede, Etage 6, Bureau 17
홈페이지	https://www.hnh-iplaw.com/en/
이메일	info@hnh-ip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모로코의 외환시장은 경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1993년부터 자유화됐으나 자본거래는 아직 규제되고 있다. 디르함화의 태환 자유화 또한 지난 1997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BIS 비율 8%가 도입됐고, 단일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비율이 자본금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모로코 통화인 디르함화는 지난 몇 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달러의 전 세계적인 강세 현상으로 현지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3.12.14. 기준, 1달러는 10.08 DH(모로코 디르함)을 기록하였다.

모로코에서 외환 거래는 아직도 제약이 있지만 수출입, 국제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 기술지원, 관광과 관련한 대금결제는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외환관리법에 의거, 모든 외국인은 현지 거주 여부에 따라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개설할 수 있는 계좌는 자국 통화인 디르함화 표시 보통계좌(Foreign accounts in convertible Dirhams)와 달러화 표시 보통계좌이며, 달러 계좌에서 디르함화 계좌로의 환전은 가능하나 디르함화 계좌에서 달러화 계좌로의 예치, 달러화 인출은 불가능하다.

2020년 3월, 모로코 정부는 환율 변동 폭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였는데 모로코 환율은 유로화 60%, 달러화 40%로 구성된 통화바스켓 제도에 따라 중앙은행인 Bank Al-Maghrib에서 매일 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Bank Al-Maghrib 은 모로코 재무부와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재정정책 수립, 지폐발행, 정부 외환감독 관리, 정부재정관리, 상업은행 및 특수은행 감독 등 업무와 일반 상업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Bank Al-Maghrib는 분기별로 재무부와 같이 모로코 외환시장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CEIC DATA에 따르면 '23.9월 현재 모로코 외환보유고는 310억 달러로 '22.3월, 309달러 대비 소폭 늘었으나 '21.7월 353억 달러 대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외환 규제

현행 주요 외환규제는 모로코 거주자에 의한 자금이동에 관한 것으로 사회, 의료 또는 직업 비용을 커버하는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외환관리 제도하에서 경제주체들은 수출입, 국제 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 기술지원, 관광과 관련한 청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수출업자는 15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모로코 내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모로코 무역 투자 관련 규정의 경우 2017년을 기점으로 완화돼, 2017년 1월 1일 모로코 소재 외국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의 경우, 세금 제외 수익 전액의 외국송금이 가능해졌다. 이는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 산하기관인 외환청(Office des Changes)에서 제반 외환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상거래를 위한 외환거래를 자유화했으나, 내국인의 외환거래는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연간 한도액 2,000달러(약 20,000디르함)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T/T 사전송금에 의한 수입결제는 모로코 외환청(L'OFFICE DES CHANGE)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즉, 수입상품이 모로코 영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T/T 사전송금은 최대 200,000디르함(약 20,000달러) 이내면 가능하며 200,000디르함 초과 시는 총 금액의 30%까지 사전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입상품 통관이 완료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T/T 송금이 가능하다.
아래에 모로코외환청의 해외 송금 관련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에서 대상영역은 모로코 영토를 말한다. 즉, 모로코 항구에 도착하면, 잔금 지급가능하다.
물론 전체 계약 금액이 20만 디람 이하면, 바이어가 전액 송금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 한번에 전액송금도 가능하다.

(모로코 외환청 규정 44조 중 해당부분 번역)

수입 서류의 본국 은행은 수입 총액의 30% 한도 내에서 외국 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상업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할부금을 지불할 권한이 있다.

이전된 예치금 비율의 초과가 최종 송장 총액의 5% 이하인 경우 수입 문서의 주거래 은행은 수입 물품 가치의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지급액이 최종 송장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잔액 이체는 모로코 외환청의 특정 승인이 있어야만 수행될 수 있다.

외화 또는 전환 가능한 디르함으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자의 경우 수입 서류의 본거지 은행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수출자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화 또는 전환 가능한 디르함으로 계정을 인출하여 지불하는 경우 수출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상업 계약에서 "대상 영역"에 상품이 실제로 반입되기 전에 남은 잔액을 지불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분할지불을 할 수 없다. 다만, 상기 잔금의 지급이 신용장 또는 추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10.08 MAD ('23.12.14. 기준환율)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53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27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61
비고	2022년 9월초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5 MAD(모로코 디르함)이었으나 2023년 9월 1일부로 16.30 MAD(약 1.61달러)로 5% 인상되었다. 월 최저임금은 3,111.39 MAD(약 308달러, 월 191시간 근무기준)이다.				

<자료원 : 현지언론, 정부 사이트 등>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모로코의 노동법과 노사 관련 법률은 프랑스의 영향으로 받아 다른 개도국에 비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달해 있다. 따라서 노무 관련 법규 관행은 피고용자의 권익보호에 치우쳐 있어 해고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생산성 증대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로코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el)의 추천, 의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통 노동자들은 노조가입 근로자 및 비노조가입 근로자로 구분되며 노조가 없는 업체의 경우 통상 사무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정규직(CDI): 가장 일반적인 고용 방식이며 상호 계약이 파기될 때까지 고용되는 방식이다.
- 계약직(CDD):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계약기간은 24개월을 넘길 수 없다.
- 임시직(CDT): 임시로 일이 있을 때 고용하는 방식이다.

인력을 고용할 시 고용계약서를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 배석한 가운데 작성해야 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한 부씩 소지해야 한다. 또한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임금, 근로조건을 고용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피고용인의 서명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유효하다. 계약기간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갱신된다. 고용 후 고용자는 사회보장당국(CNSS)에 급여, 고용주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CNSS 신고기록이 노사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써 활용되고 있다.

한편 자국인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자의 취득은 해당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의 보유인력이 모로코에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이 인정할 경우에만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산업분야에 따른 주간 및 연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 비농업분야(산업/상업/자유업 등): 주간 44시간, 연간 2,288시간
- 농업분야: 연간 2,496시간, 주간 근무시간은 경작의 필요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또한 피고용인이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이 임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하며 산업분야/근무시간별 가산율은 아래와

같다
- 가산율 25%: 비농업 06:00~21:00, 농업 05:00~20:00
- 가산율 50%: 비농업 21:00~06:00, 농업 20:00~05:00
* 초과근무가 공휴일에 시행될 경우 대체휴가를 허용해도 가산율은 각각 50%, 100%가 부과된다.

휴가

고용계약, 단체 근로협약, 내규 등에 더 유리한 조항이 없는 경우, 모든 피고용인은 동일 기업 또는 동일 고용주의 집에서 6개월 계속 근무 후에는 아래와 같은 연차유급휴가(연가) 권리를 누린다.
- 근무 개월당 1.5일 (1년 18일)
- 단, 18세 이하 피고용인의 경우 근무 개월당 2일

이후 연가 일수는 근무기간 5년마다 1.5일씩 늘어나며 전체 연가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의료 증명서(Certificat medical)로 확증된 임신상태의 여성 피고용인은 고용계약, 단체노동협약, 또는 내규에 더욱 유리한 규정이 없는 한 14주의 출산휴가를 가진다. 출산 중인 여성 피고용인은 출산 후 7주 동안 고용될 수 없다.
고용주는 출산 전, 출산 직후 기간에 여성 피고용인에게 부과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여성 피고용인은 출산 예정일 7주 전부터 출산일 후 7주까지 기간 중 근무 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산 예정일보다 앞서 출산했을 경우, 고용계약의 중지는 해당 여성 피고용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14주의 고용계약 중지기간을 소진할 때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 전 출산한 여성 고용인은 수취증명 등기우편으로 고용주에게 결근 동기와 업무 복귀 희망 일자를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산모 피고용인은 출산 후 7주 또는 경우에 따라 14주 기한 소멸 시 늦어도 출산 휴가 만료 15일 전 고용주에게 통보함을 조건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계약의 중지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산모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동의하에 1년간의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고

정당한 동기 없는 피고용인의 해고는 금지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처벌 또는 해고의 정당한 동기가 될 수 없다.
- 노조 가입 또는 노조 대표 직입 수행
- 근무시간 외 노조 활동 참여 또는 고용주의 동의 또는 단체 노동협약 또는 내규에 의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참여
- 피고용인 대표직 입후보, 수임, 또는 수행
- 고용주에 대한 소원제기 또는 법적 쟁소 참여
- 인종, 피부색, 성, 기혼여부, 가족관련 책임, 종교, 정치적 의견, 조상의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
- 장애인으로서 기업 내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 내 장애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대해 중대하지 않은 과오에 대해 아래 중 하나의 처벌을 취할 수 있다.
- 경고
- 견책
- 제2차 견책 또는 8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정직
- 제3차 견책 또는 타 보직 전보 또는 경우에 따라, 피고용인의 주소지를 고려해 타 근무지 전출

고용주는 단계적으로 처벌을 하며 일 년 중 처벌조치가 소진됐을 경우 고용주는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래의 경우 피고용인의 해고를 촉발할 수 있는 중대한 과오로 간주한다.
- 자유를 박탈하는 확정판결을 야기한 명예, 신뢰 또는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범행
- 기업에 손해를 야기한 직무기밀의 노출

- 기업 내에서 또는 근무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한 사실
(절도, 배임, 공공연한 만취, 마약류 사용, 육체적 공격, 소관직무 수행에 대한 부당하고 고의적인 거부, 12개월 기간 중 4일 이상 또는 8반일 이상 무단결근,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태만에 의한 장비, 기계 또는 재료의 중대한 손상, 고용주에게 상당한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피고용인의 과오, 작업 또는 근무지 안전을 위한 수칙의 미준수로 상당한 손해 야기, 방종 선동, 기업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피고용자,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리인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폭력 또는 공격)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감독관은 기업에 대한 피해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한편,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대한 경고 등 해고의 근거사유가 될 수 있는 서면자료를 피고용인에게 통보시 단독으로 직접 통보하는 것 보다 회사 노조대표 또는 이를 가름하는 사람 입회하에 객관성을 유지한 채 전달하는 것이 향후 법적분쟁시 유리하다.

회사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고용주는 근무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ㅇ 근무기간별 해고수당 지급액
- 연간 96시간의 급여 (근무 연차 5년까지)
- 연간 144시간의 급여 (6~10년)
- 연간 192시간의 급여 (11~15년)
- 연간 240시간의 급여 (15년 초과)

한편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의견에 반해 강제 해고하는 경우, 해고수당은 근무연수x1.5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며 최대 36개월을 넘을 수 없다.

피고용인은 부당한 해고를 당할 시 손해배상과 보상금을 받는다. 피고용인은 실직 보상금도 받는다. 중대한 잘못 시 피고용인은 사전고지나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없이 해고될 수 있다. 피고용인의 해고 전, 피고용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적일로부터 8일 이내에 피고용인 대표 또는 자신의 선정한 회사 내 노조대표의 참석 하에 고용주 또는 고용주 대리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퇴직금

이직 등 피고용인의 자발적 사유 또는 정년에 따른 퇴직의 경우 법적인 퇴직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모로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사회보장기금(CNSS :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에 가입하고 피고용인 및 견습자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CNSS에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족수당 등 사회보장 항목별 기여금은 피고용인이 수령하는 총 임금 및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받은 모든 금액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항목별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부담률은 아래와 같다.

ㅇ 항목별 고용주 및 피고용인 부담률
- 의무건강보험: 고용주 4.11%, 피고용인 2.26% (합계 6.37%)
- 장기수당(국민연금): 고용주 7.93%, 피고용인 3.96% (합계 11.89%, 과표상한 6,000모로코 디르함)
- 단기수당(병가, 출산휴가 등): 고용주 1.05%, 피고용인 0.52% (합계 1.57%, 과표상한 6,000모로코 디르함)
- 가족수당: 고용주 5.4%, 피고용인 0% (합계 6.4%)
- 교육훈련: 고용주 1.6%, 피고용인 0% (합계 1.6%)

* 자료원: CNSS

고용보험

해당사항 없음
•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에 미해당
• 퇴직공제조합에 해당하는 CIMR(퇴직연금보험공단) 가입 대상자
- 고용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혜택 수혜를 희망하는 고용주(분야 제한 가능)
138
모로코 개황
- 소득 활동 종사자 중 개별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기업/공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단, 사기업/공기업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월급 총액 기준)
• 고용주 및 수급 대상자는 월급 총액의 7~24%를 분담금으로 퇴직
연금보험공단에 지불(단, 고용주의 지불액이 수급 대상자의 지불액 초과 시)

산재보험

현지법에 따라 2002년 11월 이후로 피고용인의 업무상 산재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무실 등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출퇴근길 또는 통상 점심을 먹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한 보장된다.

국민연금

모로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사회보장기금(CNSS :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에 가입하고 피고용인 및 견습자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CNSS에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족수당 등 사회보장 항목별 기여금은 피고용인이 수령하는 총 임금 및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받은 모든 근액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항목별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부담률은 아래와 같다.

ㅇ 항목별 고용주 및 피고용인 부담률
- 장기수당(국민연금): 고용주 7.93%, 피고용인 3.96% (합계 11.89%, 과표상한 6,000모로코 디르함)
- 의무건강보험: 고용주 4.11%, 피고용인 2.26% (합계 6.37%)
- 단기수당(병가, 출산휴가 등): 고용주 1.05%, 피고용인 0.52% (합계 1.57%, 과표상한 6,000모로코 디르함)
- 가족수당: 고용주 5.4%, 피고용인 0% (합계 6.4%)
- 교육훈련: 고용주 1.6%, 피고용인 0% (합계 1.6%)

* 자료원: CNSS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 과세대상은 국내 모든 법인과 영리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법인이나 기타법인이 해당한다. 과세기준은 기업의 순이익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모로코 정부는 2022년 12월 기존 3구분되어 있던 법인세율을 2026년부터 2구분으로 단순화한다고 발표했다.
과도기에 해당하는 2023~2025년에는 순이익에 따라 점차 세율이 달라진다.

ㅇ 기간별 순이익(단위: DH)에 따른 법인세 과세율

	2022	2023	2024	2025	2026
- 300,000 미만	10%	12.5%	15%	17.5%	20%
- 300,001~1,000,000	20%	20%	20%	20 %	20%
- 1,000,00~1억 미만	31%	28.5%	25.5%	22.75%	20%
- 1억 이상	31%	32%	33%	34%	35%

* 단, 신용기관, 모로코 중앙은행, 정부기금 운용기관(CDG), 보험 및 재보험 회사, 리스회사의 경우 37%(2022)에서 37.75%(2023), 38.5%(2024), 39.25%(2025), 40%(2026) 적용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자연인 및 법인세 적용을 택하지 않은 법인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수익, 투자소득/수익 등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0~38% 세율이 적용된다.

ㅇ 연간 소득액(단위: DH)에 따른 세율
- 30,000 미만: 0%
- 30,001~50,000: 10%
- 50,001~60,000: 20%
- 60,001~80,000: 30%
- 80,001~180,000: 34%
- 180,000 초과: 38%

2022년말 기준 세율변동은 없었으나 모로코 정부는 경제난으로 고통 겪는 서민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 생애 첫 취업자의 개인소득에 대한 면세(36개월) 적용을 2026년말까지 연장
  단, 2023.01.01-2026.12.31 기간 중 취업해야 하며, 취업싯점 연령은 만 35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세전 연봉이 1만 디르함을 받는 생애 첫 취업자의 개인소득은 면제(최장 24개월)
  단, 회사 고용규모가 10명 이하이고 종신계약을 맺어야 하며 2년 동안 고용 유지되어야 함
- 고용주의 개입없이 직접 받는 팁은 개인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산업, 수공업, 자유활동 및 기타 수입활동에 부과된다. 소매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매출이 2백만 DH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된다.

ㅇ 부가가치세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 일반적인 경우 : 20%
- 특정 소비자 제품 : 7%
  · 정제 설탕 및 각설탕, 밀크 파우더
  · 저연비 차량과 동 차량제조 시 필요한 모든 제품, 부품 및 규정조건에 따른 조립 서비스
- 특정 식료품, 음료, 특히 호텔 산업 : 10%
  · 호텔 및 다른 숙박시설에서의 숙박
  ·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식료품 및 음료
  · 식용유, 쌀, 파스타, 소금
  · 석유가스, 기타 탄화수소 가스, 석유 또는 셰일 오일
  · 은행/신용 거래 및 외환 수수료 등
- 기타 제품 : 14%
  · 티(Tea), 버터, 교통, 전기, 상업용 소형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다음 전문직종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적용한다.
- 변호사, 공증인, 통역서비스업자, 서류집행관, 수의사

특별소비세

모로코 정부가 작성하고 '23.12.7일 모로코의회 통과로 확정된 2024년도 정부재정법안(PLF 2024 No 55.23)에 따라 특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특히, 주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특별세가 부과되며 종전보다 대폭 인상됐다.
- 포도주: 헥토리터(100리터) 당 850-1,500 DH
- 맥주: 헥토리터(100리터) 당 1,150-2,000 DH
- 증류주: 헥토리터(100리터) 당 18,000-30,000 DH
- 금 또는 백금: 그램당 5 DH
- 은: 그램당 0.1 DH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모로코는 PCT 조약에 가입한 국가로, PCT 국내단계 진입절차를 통해 모로코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모로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에서는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모로코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유효화(validation)가 완료된 유럽특허는 모로코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한을 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해당 특허가 부여된 날까지의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특허를 담당하는 현지 정부기관(OMPIC, Moroccan Office for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의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다.
- 웹사이트 : http://www.ompic.ma/en
- 주소 : R. S. Road 114 KM 9.5, Nouasseur - SIDI MAAROUF, CASABLANCA
- 전화번호 : +212 522 586 422

모로코는 디자인과 산업모델을 모두 보호하는데, 디자인은 평면적 요소로서 제품의 미관을 특정 짓는 선이나 색상의 집합을 의미하고, 산업모델은 입체적이며 선과 색의 수반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조형적 형상을 의미한다. 디자인과 산업모델은 식별력이 있고, 인식가능성을 가진 형태를 가져야 하며 그 형상이 유사 디자인과 다름을 의미하는 신규성을 가져야 한다. 모로코 특허청은 디자인 또는 산업모델에 대해, 실체심사는 하지 않으며, 방식심사만 하고 있다.

자연인 또는 법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한 표지'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상표의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상표를 도용하여 우리 기업 몰래 모로코에 선출원하여 우리 기업이 뒤늦게 알고 이의제기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각국별 상표권 출원비용이 부담되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경우, 즉시 한국 특허청이나 KOTRA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로 연락하여 조언을 듣는 것을 권한다.

모로코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의 조약, 국제협정, 의정서를 비준하고 있다.

- WIPO 저작권 조약
- WIPO 공연 및 음반 조약
- 상표법 조약
- 특허협력조약(PCT)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 상표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좋은 합의
-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의 억제를 위한 마드리드 협정
-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 올림픽 심볼 보호에 관한 마크 나이로비 조약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관련 의정서
- 위성에 의해 전송되는 프로그램 운반 신호의 배포에 관한 브뤼셀 협약
- 시청각 공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 원산지 명칭 및 국제 등록 보호를 위한 리스본 협정
- 맹인,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인을 위해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마라케시 조약

ㅇ 특허 절차 목적을 위한 미생물 기탁에 대한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비교(2022)에 따르면, 모로코는 132개국 중 67위를 차지했다. 혁신투입지수에서는 87위로 낮았지만 혁신산출지수에서는 56위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모로코는 중위권 그룹 중 6위(36개국)를, 북서부 아프리카국가들 중 8위(19개국)를 차지했다.
모로코 거주자의 2021년 특허 출원내역을 보면, 399건로 세계 68위, 북아프리카 2위를 보였다. 이를 분야별로 분석하면, 의료 14.0%, 전기전자에너지 8.9%, 소재야금 7.8%, 토목건설 7.8%, 측정 5.8%, 기타 55.8%였다. 출원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미국 22%, 유럽 11%, 중국 8%, 인도 7%, 캐나다 6%, 기타 44%순이다.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관련 법 : 의무 및 계약에 관한 조항 1051조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ㅇ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ㅇ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ㅇ 이익활동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ㅇ 파산
- ㅇ 주주 간 합의
- ㅇ 계약 혹은 사업의 성격상 존립기간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한 명 이상의 주주의 포기
- ㅇ 법에 의한 특별 해산사유 충족시

2) 관련 절차 : 해산, 청산, 말소의 3단계로 이루어짐
(청산인은 관할 법원내 상업등기소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dissolution) 단계

ㅇ 개념: 해산(dissolution)이란 청산의 첫 번째 단계로서 법인이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고 잔여재산 정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 이후 사업청산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운영을 할 수 없다. 해산 결정은 주주, 특별총회 외에도 특별한 경우 상법원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ㅇ 상업등기소에서 Dépôt 와 Enregistrement 두 가지 절차를 밟으며 단계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Dépôt 단계
  . 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2부
  . 입금증명서
  . 청산 책임자의 국적 신분증 사본
  . 요금정산과 관련된 문서

- Enregistrement
  . 해산 결정을 발표할 신문
  . 신문에 게재요청
  . 적합 판명서 3부

(2) 청산(Liquidation)단계

ㅇ 개념: 청산(Liquidation)은 법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상업등기소에서 Dépôt 와 Enregistrement 두 가지 절차를 밟으며 단계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Dépôt 단계
  . 청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 Enregistrement
  . 청산 결정을 발표할 신문
  . 신문에 게재요청
  . 적합 판명서 3부

(3) 말소(radiation) 단계

ㅇ 개념: 말소(Radiation)은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해 주주에게 배분한 후 상업등기소 등기부에서 법인 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이다.
ㅇ 상업등기소에서 말소와 관련된 절차를 밟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말소 신청서
. 적합 판명서 3부
. 요금정산과 관련된 문서

3)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이익이 없더라도 매년 최소 3,000 MAD (약 40만 원)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금액이 누적된다.
(회사설립 후 처음 36개월은 면제)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을 이을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은 물론 서쪽으로는 남북미 아메리카 대륙과도 연결되는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모두 영해로 가지는 곳은 스페인과 함께 모로코가 대표적이다.
인건비가 유럽에 비해 1/10수준으로 낮아 프랑스 르노, PSA를 비롯 자동차 회사들이 모로코에 공장을 두고 연간 생산 40만대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모로코 및 유럽·아프리카 시장공략을 위한 생산·물류거점 활용 가능하다.

모로코는 인구규모가 3,800만명을 넘어 북아프리카에서 시장규모가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인종적으로는 아랍·베르베르인이 전체 인구의 약 99%를 차지하며 이슬람이 국교이다.

언어는 일상어는 아랍어(베르베르어)와 불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식자층에선 불어의 사용비중이 단연 압도적이고 공문서나 비즈니스 언어도 대부분 불어를 사용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어사용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아직은 불어, 아랍어 사용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소통하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중동에서 흔치 않은 비산유국이며, 천연자원으로 비료원료가 되는 인광석이 주요원천이다.

모로코는 중동, EU, 미국 등 세계 57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혜택이 없는 한국산의 경우 가격경쟁에서 고전하는 중이다.

모로코는 비산유국으로서 1인당 GDP가 3,700달러 미만인 개도국이므로 가격우선(price first) 시장으로 한국 제품은 포지셔닝에 애를 먹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제품 인도기간이 45일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시장이다. (한-모로코간 시차는 8시간)

통상 바이어가 외상거래를 요구, 수출대금 회수지연 또는 회수불가 사례 빈번하다.
하지만, 한번 신뢰를 형성하면 거래선을 쉽사리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다.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상대방 접촉이 매우 힘들며, 최대한 대면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여름은 휴가철이어 장기휴가(1-2달)를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종교휴일로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접촉해야 한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경제기획원(Higher Planning Commission)에 따르면, 모로코의 추정인구는 2023년 12월초 기준, 약 3,717만 명이다. 현지 소비인구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통상 생산에 활발히 참여하는 15세~59세 인구수를 통해 소비인구를 추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ㅇ 나이 그룹별 인구수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2021년 기준)
- 15세 미만: 919만 명 (25.3%)
- 15세~59세: 2,238만 명 (61.7%)
- 15~24세 : 589만 명 (16.2%)
- 25~34세 : 577만 명 (15.9%)
- 35~44세 : 502만 명 (13.8%)
- 44~59세 : 570만 명 (15.7%)
- 60세 초과: 470만 명 (13.0%)

모로코는 중위연령(median age)이 29세로 매우 젊으며 한국과 달리 15세~59세 사이의 인구비율이 2,238만 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청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에 소비인구의 저변이 넓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도시인구가 전체의 63.5%, 지방인구가 36.5%를 구성하고 있으나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행한 소득불균형 조사에 따르면, 모로코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91,933 DH(약 10,356달러)로 도시가구의 경우 98,483 DH(약 11,094달러), 시골가구의 경우 77,600 DH(약 8,742달러)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20% 부유층이 전체 가구소득의 53.3%를 보유한 반면 하위 20%는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등 사회 내 빈부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원 : Higher Planning Commission (경제기획원, 연령별 인구비율 자료)〉

소비 성향

모로코는 자체 제조기반이 취약하여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 빈부격차가 커서 일부 상류층과 대다수 서민 간 소비 양극화가 뚜렷하다. 상류층은 특히 프랑스 등 해외에서 유학 또는 생활을 한 경우가 많아 생활 전반에서 고가의 유럽산 브랜드를 선호하나 의류, 가전, 생활용품 등 해외 수입품의 경우, 독점적 수입구조로 인해 제품선택이 제한적이고 가격이 비싸 해외방문 시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층의 경우 소득수준(1인당 GDP 약 3,300달러)이 낮고 실업률(공식 12.1%, 비공식 약 30%)이 높아 제품 선택 시 가격이 최우선적인 고려 요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제품이 많이 유입되는데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모로코는 스페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나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이 2위(2021년 기준)이다. 또한 높은 수입관세 및 유통마진으로 인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수품이 성행하고 암시장이 발달해 있어 정부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해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과 모로코 간 교역규모가 크지 않고 아시아 관련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먼저 떠올리는 등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현대자동차 SUV, LG전자 가전, 삼성전자 핸드폰 등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모로코 승용차 시장에서 판매대수 4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고 기아차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격, 디자인, 공간 면에서 모로코 소비자들의 인기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K-POP이 일부 10~30대 젊은 여성층에 한정, 인기를 얻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등을 통해 한국 영화, 드라마가 현지에서 빠르게 소개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에 대한 고급이미지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직은 양국 간 FTA 부재, 지리적 원거리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하나 한류 재확산에 따라 화장품 등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카사블랑카 도심에서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됐는데 수백명의 관객들은 대부분 10-20대 여학생들로 적극적인 한류팬층을 갖고 있다.
카사블랑카에는 한국산 화장품을 취급하는 MUMUSO 매장이 모로코 최대백화점인 모로코몰(Morocco Mall)에 입점한 것을 비롯 도심에도 매장 운영 중이다. 특히 모로코 여성층은 한류드라마 통해 한국 여성들의 잡티 없는 매끄러운 피부를 보고 한국 화장품(달팽이 크림,

마스크팩, 클렌징 등 피부 보습 위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로코에 한국 식품점이 존재하지 않으나 한식이 조금씩 인지도를 쌓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카사블랑카의 대표 관광지역인 코르니쉬(Corniche) 해안가에 있는 치킨집(MIK: Made in Korea)을 들 수 있는데 태극기를 게양해 거리에서도 눈에 띄고 매장주인이 방한 경험 있는 모로코 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수도 라바트 내에 한국식당 Seoul Garden 2호점이 '23년 9월 개점했으며, 카사블랑카 도심내에 Korea Taste라는 분식집이 '23년 하반기 새로 열었다.
모로코 내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을 주제로 한 유투브(드라마, 생활상에 대한 감상 공유)를 생성하여 인기를 끌곤한다.

산업재 관련해서는 하역 및 건설 기계류를 비롯한 다양한 기자재가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가격은 높지만 품질은 우수하다는 인식이 현지 바이어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등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다.
한국산 의료기기가 고급품질이면서 가격은 유럽산 보다 저렴하다는 인식하에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어 관련인증 보유한 기업들은 도전할 만한 시장이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ㅇ 바이어와의 의사소통 및 상거래 시 인내심 요구

- 모로코는 한국과 달리 전반적인 사회속도가 빠르지 않고 중동 비즈니스 관행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메일 등을 통해 카탈로그, 견적서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품에 대한 피드백 및 구매의사 결정에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 특히 모로코 회사들은 최고경영자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거래의 성사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무자와 처음 접촉을 시작하게 될 경우,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ㅇ 전 세계 57개국과 FTA 체결 (한국과는 미체결)

- 유럽/미국/중동 등 여러 지역, 국가와의 FTA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또는 무관세)로 수입되는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구매력이 제한적이어서 가격에 매우 민감한 시장이기에 경쟁력 있는 가격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가격협상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바이어 회신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ㅇ 처음부터 독점권 요구 빈번

- 첫 상담 시에도 독점권 요구가 빈번한데, 이는 현지 제조기반 미약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다양한 공급선 확보가 바이어들에게 중요한 사업기회 및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가격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ㅇ 처음 시작은 가볍게

- 모로코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 저가품 위주의 소량 오더 수주를 목표로 하고 이후 신용을 쌓은 후 거래를 늘려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ㅇ 외상거래 주의 요망

- 모로코 수입업체와 최초 거래 시, 빠른 시간내에 제품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나 안전한 대금회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지 바이어들은 지불조건으로 TT, L/C보다는 D/A를 선호하며 추가 오더 시에도 건별로 결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통상 2만 달러 이내 금액은 사전 TT 송금이 가능하나 2만 달러 초과 시는 거래대금의 30% 사전 송금 가능. 다만, L/C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기에 가급적 은행을 통한 L/C 거래를 권장) 특히 코로나로 인해 현지 내수위축 및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금회수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ㅇ 수입절차가 점차 복잡해짐

- 모로코는 최근 지속적인 대외무역 적자로 인해 기존 25%인 최고 수입관세율을 '20년 30%(1. 1.부), 40%(7.26.부)로 2차례 급격히 인상하였다.
- 또한 수입관세와 별개로 은행에서 L/C 개설에 대한 적절성 검토, 수입통관시 각종 서류 요구 및 오랜시간 소요 등 과거 대비 수입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현지 생산품목 수입시)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ㅇ 모로코 국경표시 유의

- 남부지역 서부 사하라 경우, 모로코와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등 국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임 감안하여 가급적 지도 표시 생략하는 것

이 낫다.
　만약 서부 사하라가 모로코 영토가 아닌 듯 표현(실선 또는 점선, 색깔구분 등)되는 경우, 모로코인 상대방은 심지어 상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

ㅇ 상담 시 에티켓 및 TIP
　- 모로코 바이어와 만날 때, 아랍어(모로코식) 인사말 정도를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상담이 한결 매끄러워질 수 있고 초면에 인사로는 악수가 일반적이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볼을 맞대는 인사도 널리 행해지나 여성과 인사할 때는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초면에는 성(姓)을 호칭으로 사용하고 이름을 처음부터 부르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상담 처음부터 바로 본론(사업)으로 접어드는 것보다는 건강, 가족 등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대화를 시작해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부인 등 여성가족에 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금하도록 한다. 한편 모로코의 대외교역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유럽의 인증·규격 획득 여부, 유럽기업과의 거래실적을 부각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줌, WhatsAPP 등 온라인을 통한 화상상담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ㅇ 비즈니스 언어는 통상 불어, 아랍어, 영어 순
　- 프랑스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불어가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 및 대기업 관계자들의 경우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행정서류에는 불어와 아랍어가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음으로 아랍어(모로코 방언)와 영어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다. 비즈니스 미팅에 앞서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게 될지 사전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통역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ㅇ 체면 혹은 명예 중시
　- 모로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에 상담 시에도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지에 민감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일단 긍정(Yes)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대답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모로코 바이어와의 상담 시에는 이들의 대답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전후 맥락을 살펴서 판단해 보고, 다시 확인하는 세밀함이 요구된다.

ㅇ 금요일 11:00~15:00는 기도시간
　- 대부분의 현지회사는 매주 금요일 11:00~15:00를 기도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금요일은 비즈니스 미팅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바이어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주중에도 휴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방문 또는 면담 전에 미팅일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이슬람 라마단 기간
　-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로 매년 약 한 달간 라마단 기간이 존재한다.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력(曆)의 9월이다. 예로 2024년 라마단은 3월 11일에 시작되어, 4월 10일에 종료예정이다. 라마단 기간 모로코 공공기관 및 업체들은 통상 단축근무(오전 9시~오후 3시)를 시행하며 해 떠 있는 동안에는 식당, 카페들도 영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대방 방문이나 면담 등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라마단 기간 직전에 모임을 많이 갖는다. 라마단 도중에는 일몰 후 주요 고객들 대상으로 만찬 함께 하는 이프타르(iftar)를 갖기도 한다. 라마단 종료 후 7~8월 여름에는 하계 휴가기간과 이어져서 9월 초까지 업무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모로코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기업은 해당 기간을 피해 모로코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좋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ㅇ AVITO Maroc

사이트 주소	www.avito.ma
개요	AVITO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07년 창업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로코의 경우 2012년 진출했으며, 2012년 이래 모로코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됐고 2023년 5월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모로코 전역에서 주문배달 가능하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2년 설립됐고 모로코 내 매출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종업원은 약 5천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부동산, 차량, 가전제품, 의류, 화장품, 사무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한다.
특징	긴급 배송은 3~6일, 일반 배송은 약 10일 소요

ㅇ Electroplanet

사이트 주소	www.electroplanet.ma
개요	모로코에서 가장 유명한 가전제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로서 무료 배달 서비스 제공한다. 모로코 전국 15곳의 주요 도시 매장 35곳을 통해 공급 중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설립년도 : 2008년 매출액 : US$34백만 (2022) 고용인원: 1,200명
주요 판매 품목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주방용 가전), 컴퓨터, 오디오, 스마트폰, 게임기 등
특징	구입 후 100% 환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객만족을 강점으로 내세움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한국기업 진출 현황
모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많지 않으며(교민 수 약 400명)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고,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공장 진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현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 관련, 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 건설 등이 진출하였으나 지금은 프로젝트가 일단락되었으며 KT&G도 2019년 철수하였다. 현지 자동차산업 발전에 따라 2016년 이후 유라코퍼레이션(와이어링 하네스), 2017년 핸즈코퍼레이션(자동차휠) 등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며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한동안 팬데믹으로 잠잠하던 모로코 투자진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부품, 포장재, 소재, 물류 등을 중심으로 진출을 위한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2) 진출 성공사례

ㅇ 성공사례 1 : 한국 수출입은행, 모로코 조르프 라스파 화력발전사업에 3억 5천만 달러 투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 4월 9일, 대우건설과 일본 미쓰이물산 컨소시엄이 수주한 '모로코 조르프 라스파(Jorf Lasfar)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3억 5,000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발주처는 '모로코 전력청(O.N.E.)'이고 사업주는 '아부다비 국영 에너지기업(TAQA)'으로, 석탄화력발전 설비 2기(700MW) 건설 및 운영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주계약자인 대우건설이 대규모 발전소에 대한 제작,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EPC 전 과정을 수행하고, 일본 미쓰이물산은 일본산 기자재 구매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이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발전 프로젝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입찰단계부터 대출의향서를 신속히 발급해 프랑스 Alstom 컨소시엄 등 세계 유수의 에너지 기업을 따돌리고 우리 기업이 수주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특히 수주 이전 단계부터 해외사업에서 축적된 금융자문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수출보험공사(NEXI)의 참여를 유도해 일본의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재원 다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조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선금융 후수주' 사업의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수출입은행은 2011년 9월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마루베니상사 등 일본 3개 종합 상사와 해외 프로젝트 공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이 그 결실을 맺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 수출입은행은 일본상사들과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주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성공사례 2 : 핸즈코퍼레이션 1차 생산공장 설립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로 2017년 진출추진 이후 2020년 1월, 스페인 등 유럽과 가까운 모로코 북부 탕제자동차산업단지(Tanger Med Automotive City Free Zone)에 1차 생산공장 설립을 완료하였다. 총 투자규모는 약 4.7억 달러로 모로코 역대 3위에 해당하는데 1단계 사업 완공으로 연간 알루미늄 400만 개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2단계('23년 6월) 및 최종 3단계('24년 6월) 완공 시 총 800만 개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 실패사례

ㅇ 실패사례 1 : 한국 A기업 생산공장 철수
모로코 시장에 진출했던 A기업(제조업)은 당초 유럽 거래선 통한 물량 확보, 모로코의 저렴한 인건비,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모로코에 투자했다. 수백명을 고용하며 사세를 넓혀가다 2020년부터 닥친 팬데믹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경기침체에 따라 유럽계 고객으로부터의 물량 수주가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지 못해 공장 가동률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기간이 길어져 수익성이 악화되어 결국 철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근무하던 직원들 퇴직처리, 공장 내 기계 해외반출, 법인 폐쇄에 따른 행정조치 등 후속처리 했다.

ㅇ 실패사례 2 : 한국 B기업 생산공장 투자철회
모로코 시장에 진출하려던 B기업(제조업)은 주요 거래선인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모로코의 저렴한 인건비를 고려하여 모로코에 투자하려 수차례 방문했다.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해 모로코 정부부처와 컨설팅회사 등 여러 곳을 만났으나, 용수 굴착허가 지연, 모로코의 불투명하고 느린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결국 투자의사를 접었다. 현지 투자의 성공요소로서 현지사정이 밝은 네트워크 능력 뛰어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컨설팅회사를 수차례 바꾸어 안정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것도 일조했다.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정 단계에선 위임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더 나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한국과 모로코는 사증면제협정(1993년 9월 1일)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그 이상 체류코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장기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모로코 북부 스페인령(세우타, 멜리냐)에 출국했다 들어오면서, 국경에서 여권 사증(VISAS)란에 스탬프를 받아 체류를 연장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했다. 스페인과의 분쟁으로 해당 북부 스페인령과의 이동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 대사관에서 모로코 내무부 경찰청 외국인 담당 부서에 확인한 장기체류 비자 (이하 체류증)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특히 한국 국민에 대한 모로코 체류증은 1년이므로(장기체류 교민에 대해서는 3년 또는 5년 기한의 체류증 발급) 매년 체류증을 갱신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 ㅇ 신청자격: 16세 이상으로 주재국에 입국 후 3개월 내에 신청
- ㅇ 신청서 접수 및 발급처: 소재지 경찰서 (la prefecture de police)
- ㅇ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인적사항 서식 각 2부(소재지 경찰서 비치)
  - 아래 중 해당서류 3부
  · 주재국 고용부에서 확인된 회사 또는 기관과의 고용계약서 (개인)
  · 사업자면허 사본 (사업자)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유학생)
  · 장학증서 또는 학비조달 확인서 (유학생)
  - 공증된 주택 임차계약서 1부
  - 전기 및 수도료 청구서 각 1부
  - 입국일이 포함된 여권 사본 1부
  - 수입인지 (60모로코 디르함)
  - 사진 8장 (실제 6장이나 때로 8장을 요구하기도 함)

2022년 10월 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가 해제되었다.
2023년 5월말 기준, 모로코 입국시 백신패스, PCR 음성결과 등을 요구하지 않으나 향후 갑작스런 환자급증시 다시 방역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 모로코대사관(02-793-6249)에 필요서류, 제한조치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우려 변이가 발생하거나 발병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가가 생길 경우, 그 나라는 '주의국가'로 지정해 입국 전,후 PCR검사를 재도입할 예정이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검사 없이 통관을 하나 휴대품이 과도하게 많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해 세관검사를 하기도 한다. 최근 테러 예방 차원에서 출입국 시 X-RAY 검사 및 개별품목 검사 등이 강

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테스트용 기기 및 샘플 등은 관련 공식 서한 및 ATA 까르네*(ATA CARNET)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

ㅇ 모로코 여행자 면세 통관 정보
- 주류: 1병(1리터)
- 담배: 200개비
- 향수: 향수150ml 및 화장수 250ml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선물 및 여행기념품(현지화 2,000모로코 디르함 이하 가치),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용 컴퓨터, 개인용 악기, 스포츠용품, 자전거 등 각 1대
- 외국환 신고: 모로코 화폐(모로코 디르함)의 반출 및 반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① 외화반출 신고 요건
· 여행객: 10만 모로코 디르함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반출할 경우 소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출국 전에 반드시 세관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모로코 거주자: 10만 모로코 디르함 미만에 해당하는 외화는 은행에 소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후 여권상에 확인 도장을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bordereau de charge'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 허가받은 후 반출 가능하며, 10만 모로코 디르함 이상은 반출이 불가하다.

② 외화반입
· 10만 모로코 디르함 이상의 외화를 반입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③ 한도 초과 외화를 휴대 반입 및 반출 시 세관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소지한 외화를 모두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의약품
· 소량의 개인 사용분은 반입이 가능하다.(단, 의사진단서, 처방전 등 증빙자료 제출하고 세관에 비치된 진술서 작성 후 서명 필요)
· 개인사용 목적 외에는 보건부의 반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 식품: 농산물은 식물위생허가서가 필요하다.
- 자동차: 비거주자가 여행 목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자동차 등 교통수단은 90일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 반입불허품목: 무기 및 탄약(단, 사냥용 무기와 탄약은 경찰청 허가 후 반입 가능), 마약류, 법과 질서 및 도덕을 혼란시킬 수 있는 기록물 및 영상물, 국제 협약(CITES)에 따라 보존되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 기타 유의사항
· 한국으로부터 입국 시 말라리아 등 질병예방접종은 요구되지 않는다.
·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동물 건강진단서 지참이 필요하다.
· 일반 모로코 전통 민속예술품, 여행기념품 등은 가격과 관계없이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예술품 및 골동품 반출 시에는 문화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 모로코에서 검사, 제조 목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검측장비,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은 ATA 까르네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동 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납부, 통관불허, 모로코 세관 당국으로부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ㅇ 주 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212 537 75 17 67
주소	Ambassade de la Republique de Coree, 41 Av. Mehdi Ben Barka, Souissi, Rabat. Maroc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ma-ko/index.do
비고	수도인 라바트에 위치

<자료원 : 주 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ㅇ CAPM(Centre Anti Poison et Pharmacovigilance du Maroc)

전화번호	+212-5 37 77 71 69
주소	Rue Lamfedel Cherkaoui, Rabat Instituts, Madinate Al Irfane, B.P. 6671, Rabat 10100, Maroc
홈페이지	https://www.capm-sante.ma/
비고	모로코 독성실험실(의약품, 농약, 의료기기 등 독성실험 수행 보건부 산하기관)

ㅇ ONCF(Office National des Chemins de Fer du Maroc) 철도청

전화번호	+212 537 27 68 46
주소	8 Bis, Rue Abderrahmane El Ghafiki, Agdal - Rabat
홈페이지	www.oncf.ma
비고	고속철도(Casablanca-Tangier구간) 운영 중

ㅇ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재정경제부)

전화번호	+212 537 67 75 01(~08)
주소	Bd. Med V. Quartier Administratif Rabat - Chellah
홈페이지	http://www.finances.gov.ma

ㅇ Ministère de l'Energie, des Mines, et du Développement Durable(에너지광업지속가능개발부)

전화번호	+212 537 68 84 00
주소	Rue Abou Marouane Essaadi BP : Rabat Instituts 6208 - Haut Agdal - Rabat - Maroc
홈페이지	http://www.mem.gov.ma

∘ Ministere de l'Industrie, de l'Investissement, du Commerce et de l'Economie numerique

전화번호	+212 537 66 96 00
주소	Quartier Administratif, Rabat, Maroc
홈페이지	http://www.mcinet.gov.ma

∘ Moroccan Investment Development Agency (AMDI, 투자개발청)

전화번호	+212 537 22 64 00
주소	Mahaj Ryad Center, Attine Avenue, Business Building N°5 (Visitor reception) & N°8 (Registry Office) HAY RYAD, RABAT, MOROCCO
홈페이지	http://www.invest.gov.ma

∘ Le Matin (주요 일간지)

전화번호	+212 522 48 91 00
주소	17, Rue Othmane Ben Affane - 20.000 Casablanca, Maroc
홈페이지	http://www.lematin.ma
비고	주요 일간지

∘ Magreb Arabe Presse (MAP, 모로코 통신사)

전화번호	+212 537 27 94 00
주소	122, Avenue Allal Ben Abdellah, Rabat
홈페이지	http://www.map.ma

∘ Moroccoworldnews (온라인 뉴스)

전화번호	+212 661 46 47 67
주소	Imm. 14, Apt 6, Rue Mekka, Hassan, Rabat
홈페이지	http://www.moroccoworldnews.com

비고	영어 뉴스 제공

ㅇ Dailymorocco (온라인 뉴스)

전화번호	홈페이지에 미기재
주소	홈페이지에 미기재
홈페이지	http://dailymorocco.com/
비고	영어 뉴스 제공

ㅇ L'ECONOMISTE

전화번호	+212 522 95 36 00
주소	70, Bd Al Massira Khadra, Casablanca
홈페이지	http://www.leconomiste.com
비고	대표적인 현지 경제뉴스지

ㅇ Office des Changes

전화번호	+212 537 266 363
주소	31, Avenue Patrice Lumumba, Hassan, Rabat
홈페이지	https://www.oc.gov.ma/en
비고	모로코 외환관리청으로 수출입 통계, 수입관세 등 유용한 정보 확인 가능

ㅇ BANK AL-MAGHRIB (중앙은행)

전화번호	+212 537 574 104
주소	277, Avenue Mohammed V, Boîte postale 445, Rabat
홈페이지	https://www.bkam.ma/en
비고	금융정책, 환율, 금리 등 확인 가능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0.08 MA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0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2.0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4.0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4.0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60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30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600
8	의료	항생제	12정	5.5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6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80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8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3.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500
14	서비스	전기요금(4인 가정)월간	1Kwh	0.8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7.500
16	여가	담배	1갑	3.90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7.400
18	임금	최저임금(월)	법정최저	308.0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7489.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3.000
21	식품	쌀	1kg	2.500
22	식품	식빵	한묶음	1.900
23	식품	고기	1kg	12.900
24	식품	계란	10개	1.900
25	식품	우유	1L	1.100

26	식품	식용유	1L	2.200
27	주거	전기요금(4인 가정)월간	1kWh	0.800
28	주거	수도세	㎥	0.400
29	주거	가스비	㎥	4.00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월	12.0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30.00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248.00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	0.20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	분	2.10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분	1.80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30.000
37	서비스	TV 수신료	1개월	3.00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9.40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2.50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9.000

<자료원 : 현지마트(Marjane), 카사블랑카 아메리칸 스쿨(CAS) 등 >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모로코 내에서는 통칭 모로코 디르함(Dirham, DH)으로,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MAD(Moroccan Dirham)로 약칭되고 있으며 1모로코 디르함은 100쌍팀(Centime)이다. 자릿수 구분을 우리와는 다르게 하여 천 단위 구분 표시로 점(.)을 사용하고 소수점은 콤마(,)로 표시하여 혼동하기 쉽다.(예: DH 1.200,55 / 천이백 모로코 디르함 오십오 쌍팀). 지폐는 200, 100, 50, 20모로코 디르함권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화(동전)는 10, 5, 2, 1모로코 디르함과 50, 20, 10, 5쌍팀이 유통된다. 1달러=10.08 모로코 디르함이다.(변동환율, 2023.12.14. 기준)

* 아래에서는 통상 모로코 디르함을 디르함으로 통칭

환전방법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에 입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의 외환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바, 모로코 입출국 시 모로코 정부의 외국환 신고기준을 유념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모로코 외국환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 외환반입: 10만 디르함(1달러=약 10.149디르함)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반입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외환반출: 10만 디르함(1달러=약 10.149디르함)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반출 시 소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출국 전 반드시 세관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도초과 외화를 휴대 반입 또는 반출 시 세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소지한 외화를 모두 압수당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로코 디르함화의 반출이 통제되고 있으므로 사용 후 남은 모로코 디르함화는 출국 시 재환전해야 한다. 단, 과거 현지화로 환전한 증명서가 없으면 환전해 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전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방문자가 48시간 이상 체류 시 체재기간 동안 환전한 금액의 50%만 달러화로 재환전해주기 때문에 단기간 방문 시에는 체류 기간에 필요한 경비만 디르함(DIRHAM)화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항, 은행, 호텔 및 시내 환전소 등에서 유로화, 미 달러화 등이 환전할 수 있다. 환전소와 은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하려면 WAFA CASH, WESTERN UNION 등의 간판을 찾아가야 한다. 최근 들어 재래시장(Ancienne Medina) 주변에서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달러화를 달러가 필요한 현지인에게 현지화로 바꿔주는 암달러상이 일부 활동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사용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일부 소규모 호텔/식당/상점/재래시장/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하며(VISA, MAESTRO, MASTER 등) 현금 자동 인출기도 사용할 수 있다. 현금 인출 시 직불카드 수수료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하지만 간혹 직불카드가 아닌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직불카드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모로코는 도시 간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비교적 잘 발달하여 있어 렌트 등을 이용한 육로 이동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으나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등 대도시 중심부는 도로가 좁고 차량이 많아 출퇴근 및 특히 오후 시간대에 정체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모로코는 도로상태가 좋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이므로 운전 또는 도보 이동 시 아래 사항에 각별히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오토바이가 많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역주행, 급차선 변경 등 운전습관이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 시내 도로의 노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 구멍이 파인 곳이 많고 라운드 어바웃(회전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이 일반적이다.
- 차량은 우측통행이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다.
- 도시간 이동시 톨게이트나 주요 길목에서 제복입은 보안군(Gendermarie)이 검문할 수 있다.
- 고속도로나 시골 길은 가로등이 없는 곳도 많아 야간운전 시 특히 주의를 요하며 도시를 벗어나면 동물(소, 양, 개, 고양이 등)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도 많다.

별도 전용 주차장(지상 또는 지하)이 많지 않아 시내 주차 시 주차구역 내에 주차해야 하는데 무인주차 티켓발급기에서 주차티켓을 끊어 차량 내부에 주차 감시요원이 볼 수 있도록 넣어두어야 하며, 주차발급기가 없는 곳에서는 통상 조끼를 입은 주차안내원이 주차를 도와주고 소정의 돈(2~3디르함)을 받는다.(관광지에서는 5 또는 10디르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도착 시까지 교통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이나 지방에서 사고 발생 시 경찰 출동이 늦어져 사상자를 오래 현장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 병원시설 및 의료진이 완비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버스

시내 곳곳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번호도 잘 표시되어 있으나 버스시간 및 목적지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카사블랑카의 경우 100여 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버스요금도 6 디르함(약 700원)으로 저렴한 편이나 노선이 복잡해 초행자 및 외국인은 이용이 쉽지 않다. 시내 버스는 대체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인구밀집 지역인 도심은 혼잡하고 정류장에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버스 외에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트램이 카사블랑카, 라바트에 존재한다.

택시

대형택시(Grand Taxi)는 일반적으로 벤츠 구형으로 정원(6명)이 차야 출발한다. 탑승 시 가격 흥정을 해야 하고 도시 간 연결 및 시내구간 이용도 가능하다. 운전자를 제외하고 조수석에 2명, 뒷자리에 4명이 탑승하는데, 공간이 좁아 자리가 불편하므로 나머지 인원수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명이 탈 경우 한 사람에 20모로코 디르함이라면, 혼자 탈 경우 총 6인에 해당하는 120디르함을 지불하면 된다.

소형택시(Petit Taxi)는 도시별로 색상이 다른데(예 - 라바트: 파란색, 카사블랑카: 빨간색) 보통 소형 승용차로 연식이 오래된 경우가 일반적이며 택시 정원은 3명(기사제외)으로 합승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2.5디르함부터 시작하고 100m당 0.20디르함씩 미터기가 올라간다. 2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요금이 할증(50%)된다. 최소요금은 도시별로 다르나 카사블랑카의 경우 8디르함이다. (가령 5디르함이 나오더라도 8디르함 지불)

탑승 시 주의사항으로는 택시요금이 한국대비 많이 저렴하나 소형택시는 외국인이면 미터기를 켜지 않고 가격을 높이 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택시 운전자에게 미터기(compteur, 꼼떠)를 켜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택시를 잡는 것도 방법이며 구간별 택시 값을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역 바로 앞이나 CTM버스 정류장 입구의 택시들은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역 주변엔 호객꾼들이 있는 편이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 통신

핸드폰

해외 출장 시 통상 로밍을 해오는 경우가 많으나 현지에서 전화 또는 데이터 사용이 많은 경우 요금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지 도착 후 공항 또는 시내 가게에서 유심칩을 사서 기존 핸드폰과 연결 후 충전을 하여 사용하거나 모로코 출장 올 일이 많은 경우 저가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지 통신사업자는 Maroc Telecom, Orange, Inwi의 3개사로 선택할 수 있다. 유심칩은 30디르함으로 기존 핸드폰에 먼저 연결한 후 전화, 문자, 데이터별로 구분하여 충전이 가능하다(데이터의 경우 통상 1G당 10디르함). 또한 휴대폰의 경우, 매장에서 고가폰으로는 아이폰, 삼성 전화기가 주로 전시되어 있으며 저가폰으로는 오포, 화웨이 등 중국산과 노키아 등 유럽산 제품도 발견할 수 있다. 저렴한 모델은 싸게는 300~500디르함 정도로 유심칩이 포함된 가격이다.

인터넷(와이파이)

모로코의 인터넷 환경은 한국대비는 매우 느리지만, 북아프리카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속도가 괜찮은 편이다. 길거리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도심 내에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은 통상 무리 없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100~200mps 속도의 FTTH 또는 optic fiber를 사용하는 사무실 또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호텔,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의 와이파이 속도는 제한적이다.

라. 관광명소

ㅇ 하산 투어(Hassan Tour)

도시명	라바트
주소	Boulevard Mohamed Lyazidi, Rabat
운영시간	09:00~18:00
휴무일	월~일 오픈
명소소개	44m 높이의 미완성 모스크로 현 국왕 모하메드 6세의 부친인 핫산 2세와 조부인 모하메드 5세의 능에 인접 위치
비고	운영시간은 방문전 확인 요망

ㅇ 제마엘프나 광장(Jamaa Lafna Square)

도시명	마라케시
주소	The Souks of Marrakesh 40000
운영시간	해당사항 없음
휴무일	해당사항 없음
명소소개	마라케시 중심에 위치한 큰 광장으로 예전엔 죄인을 처형하고 그 목을 걸어 놓는 장소였으나 현재는 곡예사, 뱀 부리는 사람 등 각종 거리 공연 및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포장마차, 식당 등이 들어서 있음

ㅇ 하산 2세 모스크(Hassan 2 Mosque)

도시명	카사블랑카
주소	Boulevard de la Corniche, Dar-el-Beida 20000
운영시간	일반인 입장 금지
휴무일	일반인 입장금지
명소소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모스크로 1993년 8월에 국민 성금으로 완공되었으며 팬데믹 이전엔 비이슬람 신자도 입장권 구매시 모스크 내부 입장 가능했으나 팬데믹 이후 일반인의 내부 출입은 불가능하여 외관을 감상하는데 그친다.

<자료원 : 구글 (운영시간, 주소 등)>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릭스카페(Rick's Cafe)

도시명	카사블랑카
전화번호	+212 (0) 522 274 207
주소	248 Boulevard Sour Jdid, Casablanca 20250
가격	20~30달러
영업시간	12:00~15:00, 18:30~01:00 (주말, 공휴일은 시간 변동 가능)
휴무일	월~일 영업
소개	모로코 배경의 유명한 영화인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까페를 재연한 식당으로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식당 중 하나임. 스테이크, 생선구이 등 서양식 요리를 제공하는데 음식 맛이 괜찮고 특히 저녁시간대 실내 분위기가 좋음
비고	운영시간은 방문전 확인 요망

ㅇ 라 바바로즈(La Bavaroise)

도시명	카사블랑카
전화번호	+212 (0) 522 311 760
주소	Rue Nichakra Rahal, Casablanca 20250
가격	25~35달러
영업시간	12:00~15:00, 19:30~23:00 (주말, 공휴일은 시간 변동 가능)
휴무일	월~일 영업

소개	카사블랑카 북부 비즈니스 호텔 밀집구역에서 멀지 않으며 스테이크가 유명한 프랑스 식당
비고	운영시간은 방문전 확인 요망

ㅇ 리스토랑테 이타리아노(I Ristorante Italiano)

도시명	카사블랑카
전화번호	+212 (0) 522 946 160
주소	8 Rue d'Ifrane cil, Casablanca 20250
가격	15~20달러
영업시간	12:00~15:00, 19:30~23:00 (주말, 공휴일은 시간 변동 가능)
휴무일	월~일 영업
소개	카사블랑카 남부 간디 대로(Boulevard Ghandi)에서 가까우며 파스타, 피자 등 가격대비 퀄리티가 높음
비고	운영시간은 방문전 확인 요망

ㅇ 스칼라(La Sqala)

도시명	카사블랑카
전화번호	+212 (0) 522 262 029
주소	Boulevard des Almohades, Casablanca 20250
가격	15~25달러
영업시간	08:00~23:00 (주말, 공휴일은 시간 변동 가능)
휴무일	월~일 영업
소개	카사블랑카 북쪽 마리나(Marina)지역과 가까우며 타진, 꾸스꾸스 등 모로코 전통요리를 맛볼 수 있음
비고	운영시간은 방문 전 확인 요망

<자료원 : 구글 (운영시간, 주소 등)>

- 한국식당

ㅇ 서울가든(Seoul Garden)

도시명	카사블랑카
전화번호	+212 (0) 522 397 776
주소	6, rue Assilm -ex La Paix, El Maarif 20100
가격	15~25달러
영업시간	12:00~15:00, 18:30~23:30 (주말은 시간 변동 가능)

휴무일	월~일
소개	카사블랑카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국식당으로 2층으로 되어있으며 삼겹살, 소주, 김치찌개 등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음
비고	운영시간은 방문전 확인 요망

<자료원 : 구글 (운영시간, 주소 등)>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팔라스단파(Le Hotel Palace d'Anfa)

도시명	Casablanca
주소	171 Blvd d'Anfa, Casablanca - Maroc
전화번호	+212 522 954 200
홈페이지	https://www.lepalacedanfa-hotel.com/
숙박료	180~250달러 (King Standard 기준, 가격은 시즌에 따라 상이)
소개	카사블랑카 중심부에 위치한 5성 호텔로 수영장, 24시간 헬스장 등 운영. 도심간 교통이동 편리.

ㅇ 하얏트 리젠시 카사블랑카(Hyatt Regency Casablanca)

도시명	카사블랑카
주소	Place des Nations Unies, 20000 Casablanca, Morocco
전화번호	+212 (0) 522 431 234
홈페이지	http://casablanca.regency.hyatt.com
숙박료	200~250달러 (King Standard 기준, 가격은 시즌에 따라 상이)
소개	카사블랑카 중심부인 메디나(Medina) 인근에 위치한 5성 호텔로 야외수영장, 24시간 헬스장 등 운영

ㅇ 그랜드 모가도르 호텔(Grand Mogador Casablanca)

도시명	카사블랑카
주소	Angle Bd Albert 1er et Rue Ait Ba Amrane, Casablanca, Morocco
전화번호	+212 (0) 522 417 272
홈페이지	http://www.mogadorhotel.com
숙박료	180~230달러 (Double Room 기준, 가격은 시즌에 따라 상이)

소개	카사블랑카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최근 호텔 레노베이션을 통해 룸 상태가 양호한 편임

<자료원 : 구글 (위치, 전화번호 등)>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모로코는 다른 중동국가 대비 정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편이나, 아직 빈부격차 및 지역 간 발전격차가 심하고 3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 등 사회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도시 빈민가나 외곽지역, 해안가 등에서 강도(차량 강도 포함), 절도, 날치기 등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고 특히 관광지 및 대도시에서 절도 등 각종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현금, 신용카드, 여권 등 소지품 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배로 유럽과 연결되는 북쪽 항구도시 탕제에서는 현지어(불어 또는 아랍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남녀 불문 야간여행이나 혼자서 벽지 또는 원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곽지역이나 시내 뒷골목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은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한편 관광지, 공항 등의 경우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길 안내, 짐 운반 등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추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명확히 의사를 밝혀서 다툼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모로코 내에서 강도(차량 강도 포함), 절도, 소매치기 및 기타 사건사고 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권을 도난당했을 경우엔 대사관에 신속히 연락 후 방문해 임시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지 강력사고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또는 응급처리 병원 접수처에서 시간을 다투는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보다는 경찰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연고자 확인 등 행정절차가 우선시 되는 관행이 아직도 팽배하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 보호를 위한 효율적 조치를 위해(코로나 감염 유사증상 발생시 포함) 아래의 대사관 연락번호를 항상 소지하고 우선 연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사관 연락처 : (대표전화/근무시간 내) + 212 537 751 767
  (긴급상황 발생시/근무시간 외) + 212 662 772 408
- 영사콜센터(24시간) + 82 2 3210 0404(유료) * 스마트폰 어플 설치 시 무료전화 이용 가능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모로코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주요 주거형태로 임차 시 일반적으로 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간혹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가 있으나 가구 미포함 임차보다 고가의 임차료를 요구한다. 주택, 아파트 임차는 일정 기간(2~3년)을 정해 놓고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임차료를 내는 월세 방식이 일반적이다. 주택 임대차법은 한 번 입주하면 소유주가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 퇴거하기 어렵게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는 현지 자국민에게 주택을 임대한 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법으로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외국인에게 주택 임대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주택 임차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임대차 계약은 정부 공인 표준 계약서에 따라 작성하며 양자 합의로 추가 내용을 삽입할 수 있다. 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 공동구역의 청소 및 유지 등을 위한 정기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임대인 및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 소개소에 의뢰해 주택계약을 구하는 경우 입주자가 통상 1개월분 임차료에 해당하는 중개료를 지불한다. 또한 주택계약 시 통상 1~2개월 임차료를 임차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예탁하고, 임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관례인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각종 이유를 핑계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루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주택 임차계약을 하면 지역마다 산재한 꼬뮨(Commune)*에 가서 법적 효력을 위한 공증(Legalisation)을 마친 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 1부씩 보관하며, 해당 서류는 전화 및 인터넷 신청 등에 필수서류로 요구된다.
* 꼬뮨 : 우리 기준 지방 동사무소 또는 구청

주택 임차 시 처음에는 외관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보일러, 수도, 전등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창문 포함), 샤워부스, 서랍 등이 쉽게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에 주택임차 시 꼼꼼한 사전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집 내부 벽에 구멍이 많아 개미 등 벌레가 출몰하는 경우가 많기에 방역에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카사블랑카 시내의 경우 주택임차료가 현지 소득대비 매우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코로나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내 중심지역보다는 동일 임차료로 보다 넓은 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외곽(Bouskoura 등)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전화

전화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현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체류증(Carte de sejour) 사본, 거주 증명서(주택임차 계약서 사본), 전화국(Itissalat Al Maghrib) 소정 신청 양식 및 신청금이 필요하다. 최근 통신사들의 서비스 개선으로 전화신청 후 가설기간이 최소 1~2주 정도로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되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는 휴대폰 선불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처음 휴대폰을 구입하면 유심칩에 20 디르함의 통화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후 추가로 선불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데, 10 디르함부터 500 디르함까지 다양하다. 충전방법은 충전카드 고유번호를 문자로 전송하거나 혹은 몇몇 Tabac에서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원하는 금액만큼 직접 충전을 해주기도 한다. 전화, 문자 충전과 인터넷 충전이 구분되어. 국내/외 전화요금은 신호음부터 적용되며, 한국 전화 시 분당 약 1,500원 정도가 부과된다.

한편 현지 인터넷 속도가 과거대비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가정용 고속 인터넷(100mbps)의 경우 월 사용료가 449 디르함(Orange 기준)으로 인터넷 검색, 넷플릭스, 게임 등 일반사용에 큰 무리가 없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20V, 50Hz(한국은 60Hz)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110V도 공급된다. 플러그는 유럽식 원형의 Two-Pin 형으로 접지형 구멍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식수

현지인의 경우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도 하나 물에 석회 또는 잔여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끓여서 먹는 편이 안전하다. 미네랄 워터의 음용이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면 현지생산 또는 수입 미네랄 워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는 미네랄 워터를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모로코 자동차시장은 일부 부유층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독일, 프랑스산 등 고급 자동차시장과 일반서민이 주로 구입하는 소형차시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가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특히 현지에 르노 및 PSA 생산공장이 있는 관계로 Dacia, Renault, 푸조가 자동차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차량은 한-모로코간 FTA 체결되어 있지 않아 수입관세가 20%로 높은 편이다. 반면, 구미권 수입차량은 FTA 체결로 무관세 수입된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자동차가 수동이며 카사블랑카의 경우 특히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 세단보다는 SUV 등의 차량이 선호되고 있고 휘발유보다는 디젤차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시 디젤 가격이 휘발유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어 디젤차의 장점이 반감되고 있다. 모로코는 타 국가대비 차량가격이 고가인 편으로 한국에서 이주 시 차량을 이삿짐을 통해 가져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고차량 구입은 자동차 대리점이나 신문 등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나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상태가 좋은 차를 찾기가 쉽지 않기에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자동차 수리의 경우 인건비는 저렴하나 부품교체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고 무엇보다 수리에 걸리는 시간이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차량가격

- 주요 차량 가격 (SUV 타입 중 옵션이 가장 낮은 차량의 경우)
  - 산타페(현대, 2199cc): 399,000 DH
  - 투산-IX35(현대, 1,598cc): 320,000 DH
  - X1(BMW, 1995cc): 341,000 DH
  - Q2(Audi, 1968cc): 323,000 DH
  - CAPTUR (Renault. 1461cc): 164,900 DH
  - DUSTER (Dacia, 1461cc): 164,900 DH

운전면허 취득

모로코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국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1년)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무면허로 처리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1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관할 모로코 운전면허 담당 사무실(Service des Mines)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모로코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발급받아 운행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모로코 간에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약이 맺어져, 한국 면허증 소지자는 주 모로코 대사관의 공증을 얻어 모로코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모로코 북부에서 페리를 이용, 스페인 남부지역으로 운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추가하면 유럽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모로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우리 대사관 외교관, 진출기업 파견자 등 운전면허 교환 신청한지 1년 넘도록 발급받기 못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남아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소

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모로코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서류를 발급하여 주는데 그 서류를 소지한 채 운전하다 만료기한(보통 2개월) 되기 전에 관할 경찰청 방문하여 연장승인 도장을 받는 방법으로 운전할 수 있다.

ㅇ 발급처 : 거주지역의 운전면허 담당사무소 (Service des Mines)
ㅇ 발급절차 :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
- 운전면허 교환 신청서
- 체류증(Carte de Sejour) 사본
- 증명사진 2매 (45×35mm)
- 신체검사확인서 (면허 종류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수수료 400모로코 디르함
* 운전면허 교환발급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는 경우, 모로코 공공서비스웹사이트 www.service-public.ma의 [étrangers au Maroc] 항목을 참고 요망

(자료원 : 주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개요: 아프리카에서 은행 분야가 가장 발달된 곳 중 하나로 주요 모로코 은행들이 아프리카 각국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ㅇ 주요 은행
- Attijariwafa: ONA(Omnium Nord African) 그룹 계열사이자 마그레브 지역 최대 은행 금융그룹
- BMCE: 모하메드 5세 국왕, 모로코 수출입 은행 지원으로 설립된 대외무역 전문은행이나 일반고객 대상 서비스도 제공
- Societe generale Maroc: 프랑스 Societe generale의 자회사
- BMCI: 1964년 설립, 2000년 BNP Paribas 그룹에 합병. 2001년 ABN Amro Bank Morocco 인수로 증권거래까지 분야 확대
- Banque populaire: 중소기업 대출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계좌 개설방법

외환계좌는 여권으로 간편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현지 모로코 디르함화 인출만이 가능하며 모로코 디르함화 입금은 외환법상 불가능하다(외환 입금, 인출은 가능). 현지화 계좌는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현지 모로코 디르함화만 거래가 가능한 보통계좌(Compte ordinaire)를 개설하거나 외화 및 현지 모로코 디르함화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외화 환전계좌(Compte convertible en dirhams)를 개설하는 것이다. 구비 서류로는 보통 계좌 개설 시 최소한 1,000모로코 디르함의 현지화를 예치해야 하며 체류증(Carte de sejour) 및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Casablanca American School (CAS)

도시명	Casablanca

커리큘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개설
학비	(유치원) 연간 97,326 DH, (1~5학년) 연간 145,895 DH (6~8학년) 연간 170,213 DH (9~12학년) 연간 176,292 DH
홈페이지	http://www.cas.ac.ma
비고	카사블랑카에 위치하며 모로코 부유층 자제 등 현지인 비율이 높다(약 70~80%). 방과 후 활동이 제한적이고 스쿨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 중학교 이상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외국인 비율이 낮아지고 학력수준도 높지 않으나 카사블랑카 내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

∘ Rabat American School (RAS)

도시명	Rabat
커리큘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개설되어 있다.
학비	홈페이지에 비공개. CAS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http://www.ras.ma
비고	수도인 라바트에 위치하여 대사관 자녀들이 많이 다니며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스쿨버스 운행한다.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Mohamed V

도시명	Rabat
커리큘럼	인문사회 및 이공계 등 종합대학
학비	공립학교로 무료
홈페이지	http://www.um5.ac.ma

<자료원 : 구글 (홈페이지)>

마. 병원

∘ Hopital C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도시명	카사블랑카
주소	Ave Mohamed Tabieb Naciri Casablanca 82403
전화번호	+212 (0) 529 004 466
진료과목	종합 (응급실 포함)
비고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투자한 사립병원으로 카사블랑카내 최고 수준, 코로나 검사 시행(검사비 500디람, 다음날 검사결과서 발급)

〈자료원 : 구글 (주소, 전화번호)〉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Morocco Mall

도시명	카사블랑카
주소	Angle Boulevard Sidi Abderrahmane, Boulevard de Biarritz, Casablanca
홈페이지	http://www.moroccomall.ma
비고	모로코내 최대 쇼핑센터로(3층) 각종 명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샵과 함께 수족관, IMAX 영화관 보유

〈자료원 : 구글 (주소, 홈페이지)〉

- 식품점

ㅇ Carrefour Hyper Marche

도시명	카사블랑카
주소	Route de Bouskoura(c.t 1029), Sidi Maarouf Casablanca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반 (가공식품, 빵, 과자, 음료수, 고기, 어류, 채소 등)
비고	다른 일반 까르푸 및 마트 대비 수입식품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음

〈자료원 : 구글 (주소)〉

- 기타 편의시설

ㅇ FNAC

도시명	카사블랑카
주소	Angle Boulevard de la Corniche Boulevard de L'Ocean Ain Diab, Casablanca
홈페이지	http://www.fnac.com
소개	프랑스계 회사로 각종 서적, 가전제품 등 판매
비고	모로코몰 내 위치

〈자료원 : 구글 (주소,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없음.

10. KOTRA 무역관 안내

ㅇ 카사블랑카 무역관 (KOTRA CASABLANCA)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무역관 주소: Ghandi Mall, Boulevard Ghandi Immeuble 8, 2eme etage N.4, 20100 Casablanca, Morocco

공항-무역관 이동

ㅇ 무역관 오시는 길

무역관은 간디대로(Boulevard Ghandi)변에 위치한 5층 빌딩인 간디몰(Ghandi Mall)의 2층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에는 Kartell(가구점), CIH(은행) Marjane (수퍼마켓) 등이 있으며 주변에는 모로코 카사블랑카 수도국 '리덱'(Lyonnaise Des Eaux de Casablanca: LYDEC)이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카사블랑카 공항(Mohammed V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무역관을 찾아오려면 공항 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그랑 택시/백색 중고 벤츠)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30km로 이동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40분~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렌트카 또는 차로 이동하는 경우, 무역관 주변도로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주차요원에게 3디람(약 400원) 내외 지급하거나 주차미터기에 티켓수령).

택시요금은 공항에서 시내까지 300디르함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사전에 공항환전소에서 택시요금과 비상용으로 100달러 정도는 환전해 두는 것이 좋다.

ㅇ 무역관 연락처

- 주소: Ghandi Mall, Boulevard Ghandi Immeuble 8, 2eme etage N.4, Casablanca, Morocco
- 전화: +212 (0) 522 989 627 / (0) 522 984 636
- 팩스: +212 (0) 522 994 513
- E-mail: kotracasablanca@gmail.com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최기간(잠정)	장소	주최
GITEX AFRICA 2024	2024-05-29 ~ 2024-05-31	모로코 Marrakech 전시장	KAOUN International
모로코 농산물 전시회 SIAM	2024-04-22 ~ 2024-04-28	모로코 Meknes 전시	모로코 농산물전시회 사무국 (Commisasariat du SIAM)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